

기후솔루션 2025 재생에너지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2025. 11. 04.

한국리서치 기획사업본부 사업1부



CONTENTS



Part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응답자 특성

Part 2. 주요 조사 결과

1.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2.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3. 기후 테크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
4. 관심 지역 이슈 점검

Part 3. 요약 및 제언

Appendix.

1. 관심 지역 이슈 점검
2. 미디어 이용행태

Part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조사 설계
- 응답자 특성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점검과 기후 대응에 대한 정부 정책 수용도를 점검하여 향후 기후 위기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기획됨

KEY RESEARCH OBJECTIVES

01



기후 변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 체감, 필요도 점검

02



기후 테크에 대한 인식수준 및
정부의 기후 대응에 대한 평가

03



관심 지역 추가 이슈 점검
(석탄 발전소 조기 퇴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재생에너지 발전 제한 인지도 등)

2024년도 대비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 점검과
현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대중인식 점검

2. 조사 설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조사 지역
세부 표본 구성
조사 기간

- 한국리서치 Master Sample을 이용한 온라인조사 (web, mobile)

- 만 20~69세 성인 남녀

- 일반샘플: 서울, 경기, 제주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제주, 경남+울산, 충남, 호남(전남, 전북, 광주)

- 일반샘플: 2,000명
(성x연령x지역 비율을 고려한 비례 할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합계 (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47	54	57	57	53	54	56	58	49	54	539
경기	65	60	78	72	87	84	92	92	75	76	781
인천	14	13	17	16	19	18	20	20	18	19	174
부산	14	13	16	15	18	18	20	21	20	23	178
대구	11	10	12	10	13	13	16	17	14	15	131
광주	7	7	7	7	8	9	9	10	7	8	79
대전	8	7	8	7	8	8	9	10	8	8	81
제주	3	2	3	3	4	4	5	5	4	4	37
Total	169	166	198	187	210	208	227	233	195	207	2,000

- 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1,084명
(지역 별, 성x연령 비율을 고려한 비례 할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합계 (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경남	22	18	25	22	33	31	39	38	36	36	300
충남	24	20	28	23	34	30	38	34	35	34	300
제주*	20	18	22	22	30	29	35	32	28	27	263
호남*	18	14	17	14	23	21	31	27	28	28	221
Total	84	70	92	81	120	111	143	131	127	125	1,084

*제주와 호남은 일반샘플+부스터 샘플 합이 300명이 되도록 구성함

- 2025년 8월 18일 ~ 9월 1일(15일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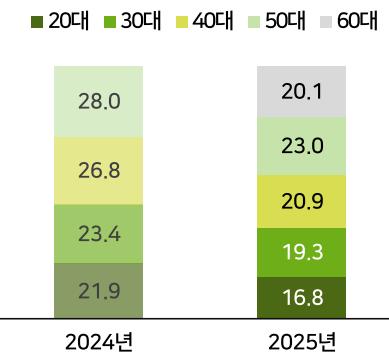
3. 응답자 특성: '24년 vs. '25년

[Base: 일반, 2,00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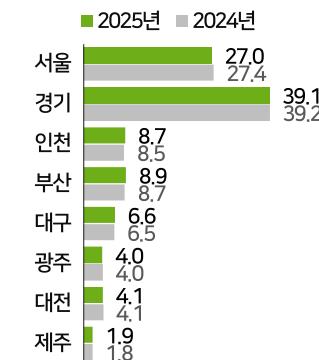
① 성별 (쿼터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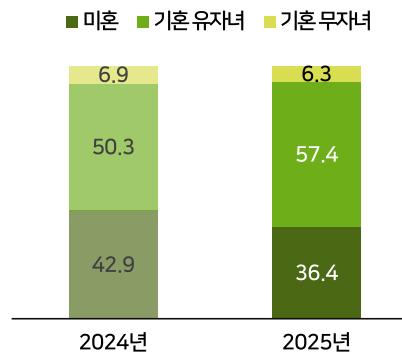
② 연령 (쿼터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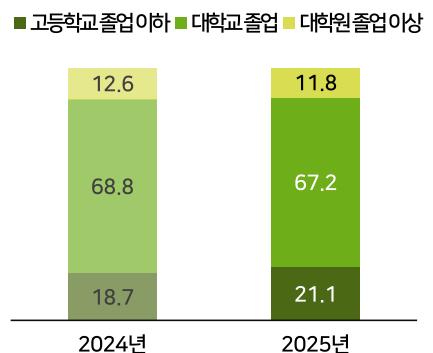
③ 지역 (쿼터할당)



④ 결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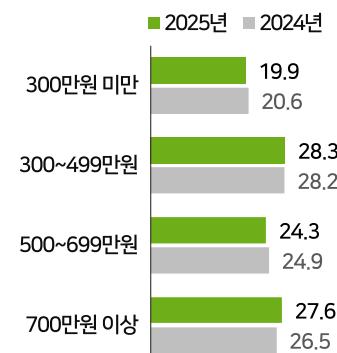
⑤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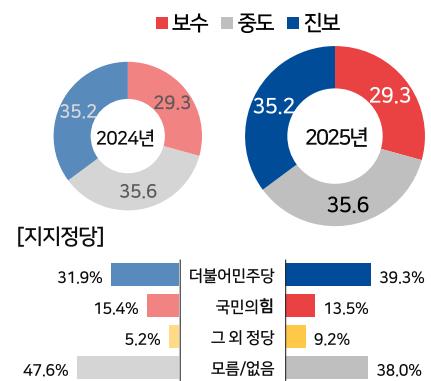
⑥ 직업



⑦ 월 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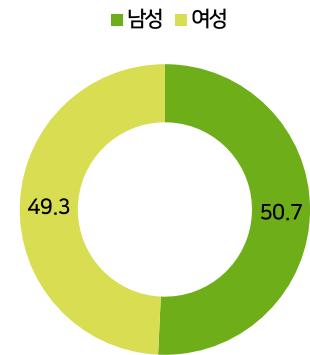
⑧ 정치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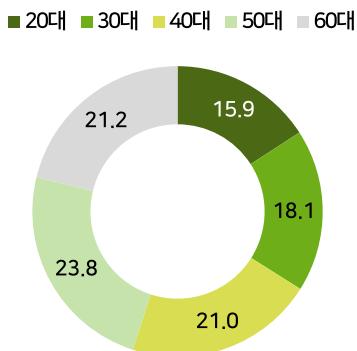
3. 응답자 특성: '25년 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Base: 일반+부스터, 3084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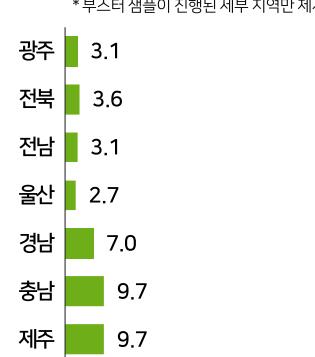
④ 성별 (쿼터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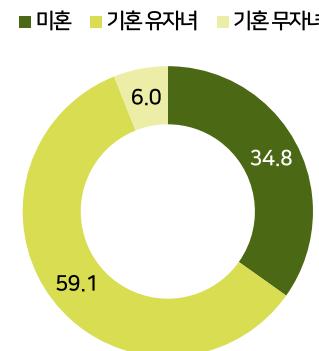
⑤ 연령 (쿼터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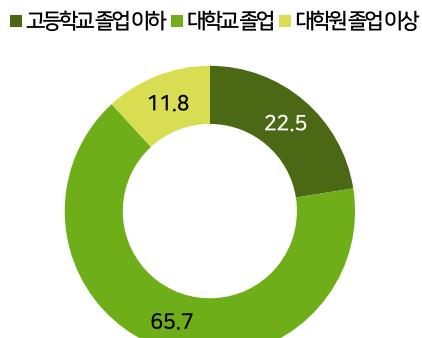
⑥ 관심 지역 (쿼터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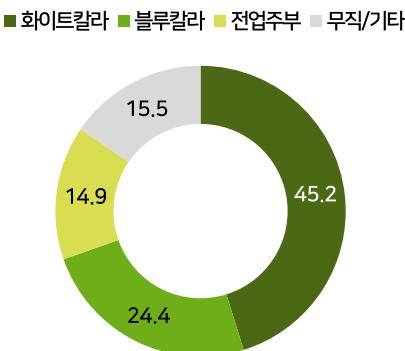
⑦ 결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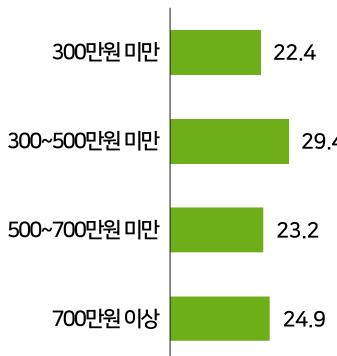
⑧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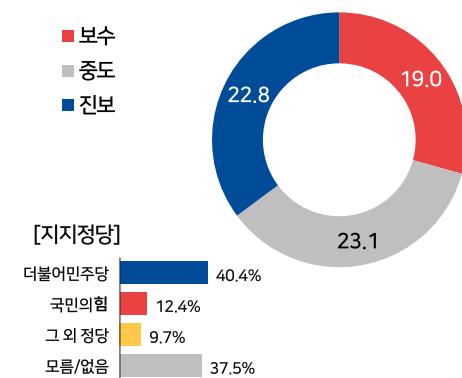
⑨ 직업



⑩ 월 평균 소득



⑪ 정치 성향



Part 2

주요 조사 결과

1.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2.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3. 기후 테크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
4. 관심 지역 이슈 점검

Part 2

주요 조사 결과

1.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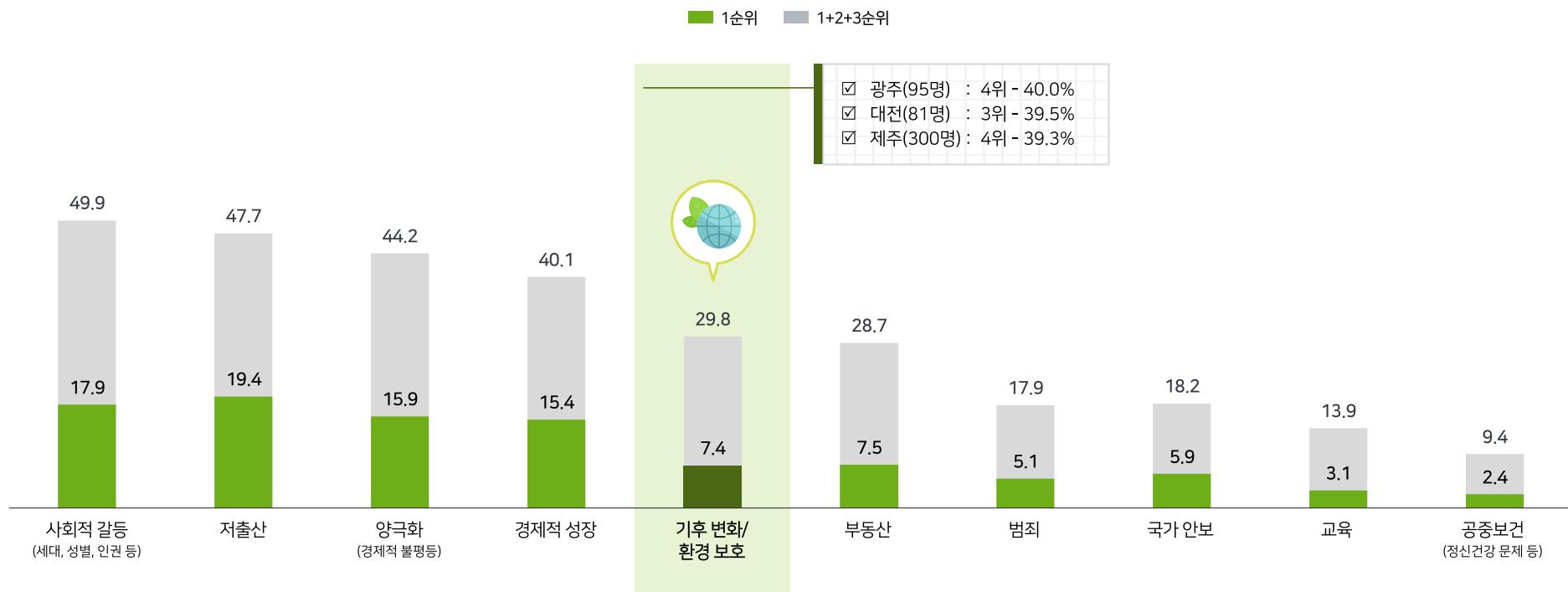
- 1) 한국의 직면 과제
- 2) 기후 변화 체감도
- 3) 기후 변화 피해 시기 및 영향력
- 4) 기후 변화 영향 범위
- 5) 기후 변화 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대응 행동
- 6) 기후 변화 책임의 주체

한국의 직면 과제

-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과반이 사회적 갈등, 저출산 문제를 언급
- “기후 변화/환경 보호”는 10개 과제 중 5위로 나타나 시급성 관점에서 중간으로 평가됨 - 광주, 대전, 제주에서는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해당 응답률과 순위가 높음

② 한국의 직면 과제

[복수응답,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Q.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page

한국의 직면 과제: '24년 vs. '25년

- '24년(20-59세) 결과와 '25년(20-59세)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기후 변화/환경보호는 6위로 동순위이나, 응답률은 2.5%p 증가
- 특히, 60대까지 포함할 경우, 그 중요성은 5위로 1계단 상승함

② 한국의 직면 과제

[복수응답,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2024년 (20-59세) (n=2,000)			2025년 (20-59세) (n=1,598)			2025년 (20-69세) (n=2,000)			
1	저출산	59.4	1	사회적 갈등 (세대, 성별, 인권 등)	49.1	1	사회적 갈등 (세대, 성별, 인권 등)	49.9	
2	사회적 갈등 (세대, 성별, 인권 등)	44.3	2	저출산	47.4	2	저출산	47.7	
3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43.4	3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43.3	3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	44.2	
4	경제적 성장	35.1	4	경제적 성장	39.7	4	경제적 성장	40.1	
5	부동산	33.5	5	부동산	29.9	5	기후 변화/환경 보호	29.8	
6	기후 변화/환경 보호	26.5	+2.5%p	6	기후 변화/환경 보호	29.0	6	부동산	28.7
7	범죄	21.3	7	범죄	20.0	7	범죄	17.9	
8	국가 안보	15.0	8	국가 안보	16.6	8	국가 안보	18.2	
9	교육	12.0	9	교육	14.4	9	교육	13.9	
10	공중보건 (정신건강 문제 등)	9.2	10	공중보건 (정신건강 문제 등)	9.9	10	공중보건 (정신건강 문제 등)	9.4	

Q.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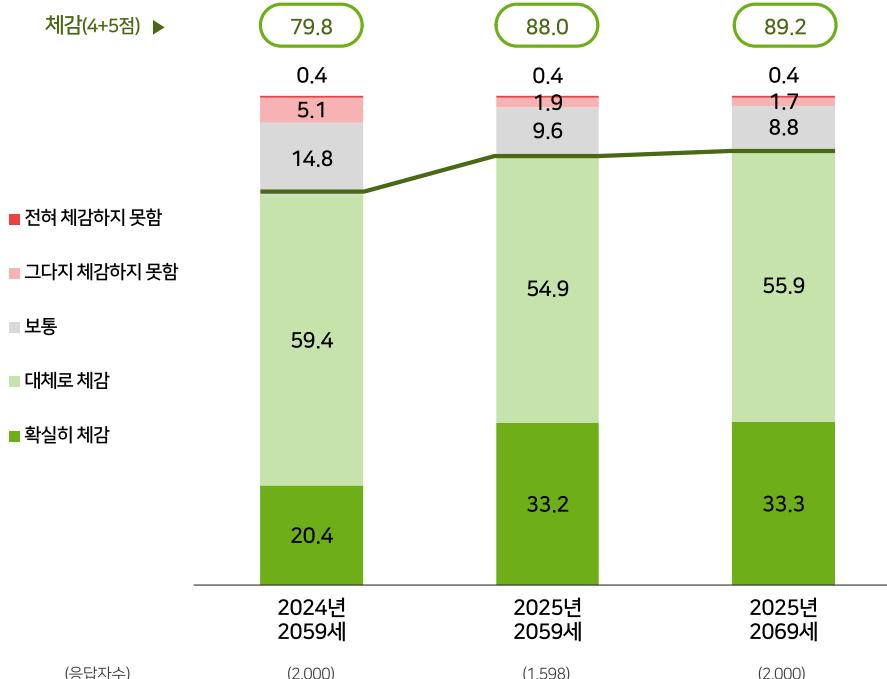
주) 1+2+3순위 기준 내림 정렬 11page

기후 변화 체감도

-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은 일상생활에서 기후 변화를 체감, 작년('24년) 대비 응답률이 10%p 증가
- 기후 변화를 체감한 현상으로는 작년과 유사하게 “빈번해진 재난”, “불규칙한 기온상승”이 상위에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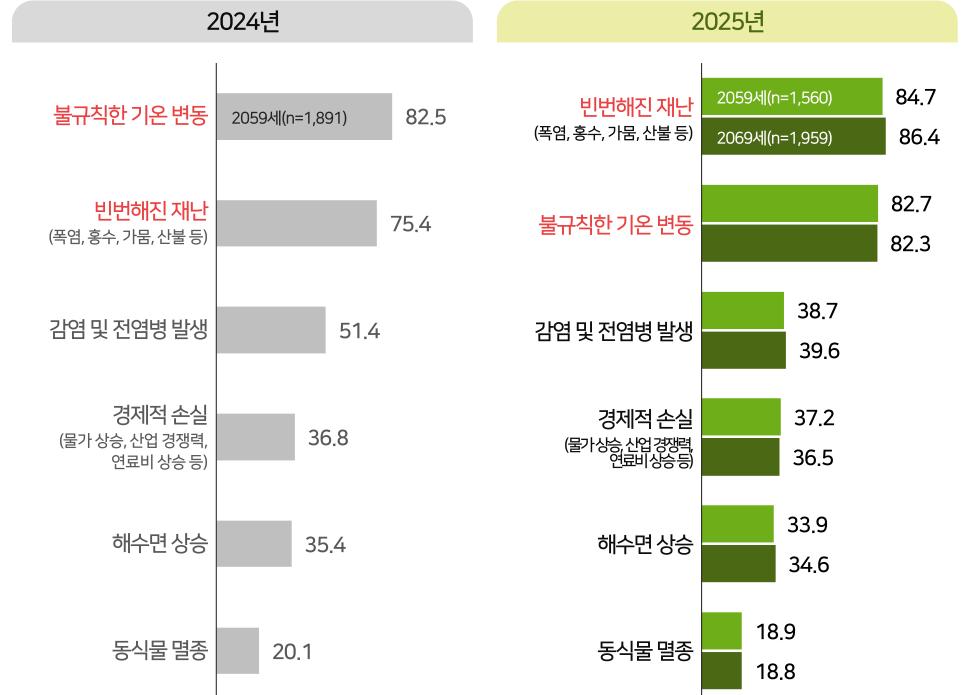
▣ 기후 변화 체감도

[복수응답,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 기후 변화 체감 현상

[복수응답, Base: 기후 변화 체감 정도 보통 이상, 단위 : %]



Q. 평소 일상생활에서 기후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Q. 어떤 현상을 통해 기후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12page

기후 변화 체감도 by Target

- 기후 변화 체감도는 90% 내외로 전 지역 유사함,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 수록 체감도가 높음

❶ 기후 변화체감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기후 변화 체감 긍정률	일반표본	지역(일반+부스터)*										성별		연령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Base)	(2,000)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300)	(999)	(1,001)	(335)	(385)	(418)	(460)	(402)
기후 변화 체감(5+4점, %)	89.2	88.1	88.8	88.5	89.7	89.5	84.0	90.7	86.7	82.7	88.3	89.0	86.0	92.3	82.4	86.0	90.0	92.2	93.5

[복수응답, Base: 기후 변화 체감 정도 보통 이상, 1,959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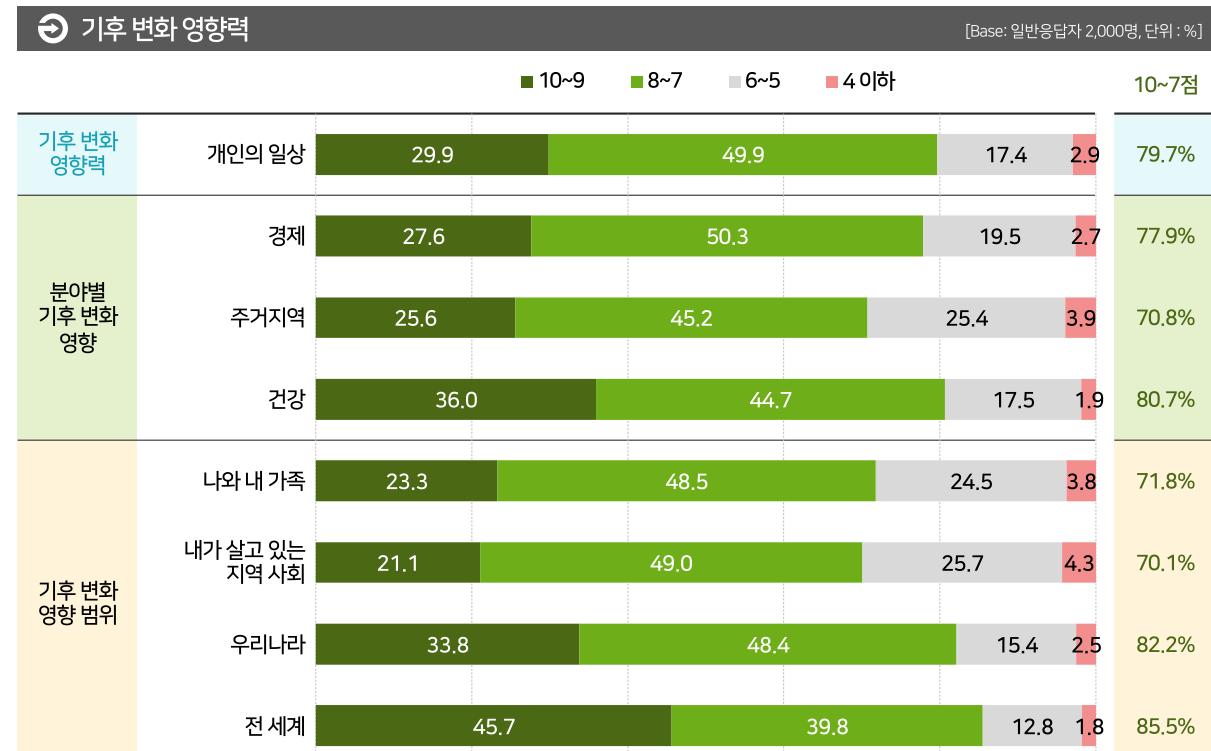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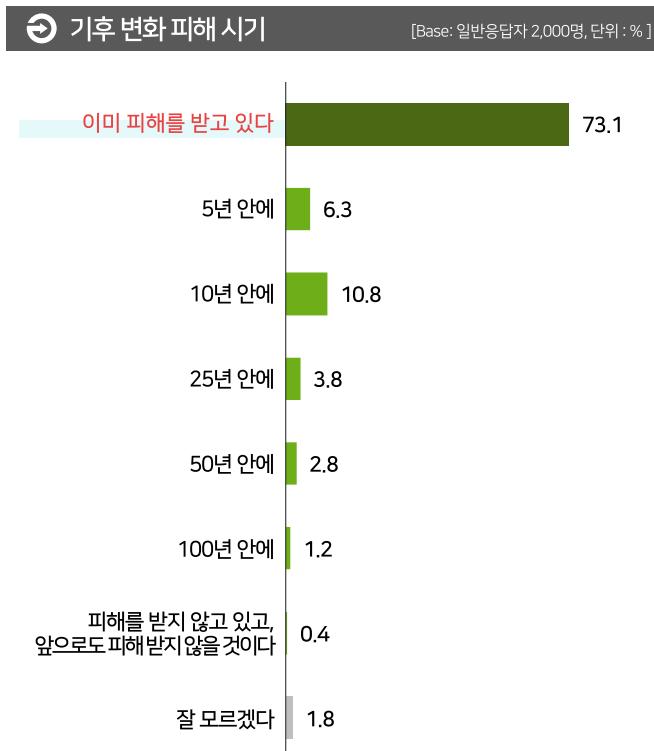
기후 변화 체감현상	일반표본	지역(일반+부스터)*										성별		연령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응답자의 수	(1,959)	(529)	(175)	(128)	(170)	(92)	(79)	(766)	(290)	(291)	(296)	(295)	(968)	(991)	(322)	(375)	(413)	(450)	(399)
빈번해진 재난 (폭염, 홍수, 가뭄, 산불 등)	86.4	86.0	87.4	85.9	87.1	84.8	83.5	86.3	89.0	84.5	87.5	82.7	83.6	89.1	74.8	81.9	86.0	93.1	92.7
불규칙한 기온 변동	82.3	83.9	82.3	83.6	78.8	72.8	77.2	83.2	82.1	74.6	77.0	76.3	81.6	83.0	84.5	84.3	82.3	80.4	81.0
감염 및 전염병 발생	39.6	38.2	48.6	31.3	40.6	29.3	41.8	40.2	35.9	38.1	39.5	31.9	33.2	45.8	33.2	36.8	38.7	44.0	43.1
경제적 손실 (물가 상승, 산업 경쟁력, 연료비 상승 등)	36.5	39.1	32.6	38.3	39.4	21.7	48.1	35.0	36.9	37.1	37.8	32.5	37.2	35.9	36.6	36.8	37.0	38.0	34.1
해수면 상승	34.6	37.6	33.7	31.3	34.1	28.3	29.1	34.7	34.8	33.3	32.8	28.8	28.7	40.4	38.5	31.2	32.0	34.7	37.3
동식물 멸종	18.8	21.0	24.0	14.8	18.8	15.2	17.7	17.2	18.6	17.5	20.6	15.6	16.1	21.5	21.1	20.0	15.5	19.6	18.5

Q. 평소 일상생활에서 기후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Q. 어떤 현상을 통해 기후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주) 지역*: 일반샘플+관심 지역부스터 샘플 사례수 함께 제시 13page

기후 변화 피해 시기 및 영향력

-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함
- "건강" 분야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개인의 일상"에서 기후 변화를 강하게 체감하는 비율도 10명 중 3명꼴
- 기후 변화의 영향 범위는 "전 세계" > "우리나라"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체감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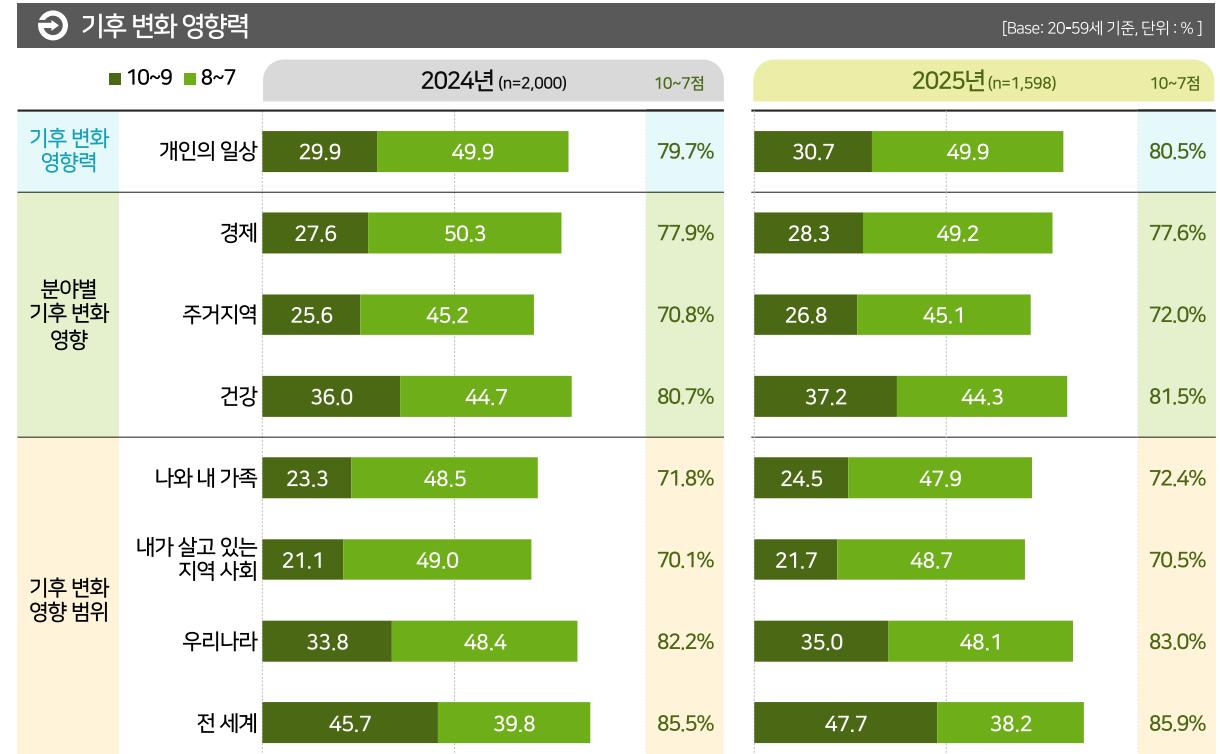


Q.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언제쯤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 기후 변화가 개인의 일상에 / 각 분야별로 / 각 사람과 장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후 변화 피해 시기 및 영향력: '24년 vs. '25년

- 우리나라 국민들 중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 대비 10%p 증가한 71.2%**
- 개인의 일상, 분야별 영향, 영향 범위 별로 느끼는 체감 수준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



Q.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언제쯤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 기후 변화가 개인의 일상에 / 각 분야별로 / 각 사람과 장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5page

기후 변화 영향 범위

- 지역 별로 기후 변화 영향 범위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광주, 제주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느끼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기후 변화 영향 범위 전반적으로 40대의 민감도가 높고, 20대의 민감도는 낮은 편

④ 기후 변화 영향 범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11점 척도, 단위: 7+8+9+10점 %]

영향력 (7+8+9+10점, %)	일반표본	지역(일반+부스터)*												성별		연령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Base)	(2,000)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300)	(999)	(1,001)	(335)	(385)	(418)	(460)	(402)	
기후 변화 영향력	개인의 일상	79.7	80.1	80.9	83.2	77.6	80.0	80.2	79.1	79.0	77.3	78.7	75.7	76.9	82.5	75.8	79.2	84.4	81.5	76.4
	경제	77.9	77.7	80.3	80.2	75.3	68.4	74.1	79.1	78.0	74.7	74.7	70.7	76.9	78.9	69.0	74.0	83.3	81.7	79.1
	주거지역	70.8	72.2	74.7	70.2	72.4	74.7	66.7	69.0	73.0	69.0	67.7	71.0	67.6	73.9	67.2	70.1	75.6	73.7	65.9
기후 변화 영향 범위	건강	80.7	80.9	82.0	80.2	78.2	76.8	75.3	81.7	79.0	77.3	75.0	78.3	76.5	84.8	75.8	79.0	84.9	84.8	77.1
	나와 내 가족	71.8	73.3	73.0	74.8	71.8	74.7	65.4	70.7	73.3	70.3	70.7	69.0	68.8	74.7	65.4	71.7	76.1	74.8	69.2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70.1	71.1	71.3	70.2	69.5	77.9	65.4	68.5	77.0	68.3	69.0	69.7	66.0	74.1	60.0	67.8	76.8	74.6	68.4
	우리나라	82.2	83.1	79.8	83.2	82.8	82.1	81.5	81.9	84.3	80.3	81.0	81.3	78.5	85.8	77.3	82.1	84.9	86.3	78.6
	전 세계	85.5	84.2	87.1	86.3	91.4	86.3	82.7	85.0	86.7	83.7	85.3	85.0	82.5	88.4	79.7	87.3	86.8	88.5	83.6

Q. 평소 일상생활에서 기후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Q. 어떤 현상을 통해 기후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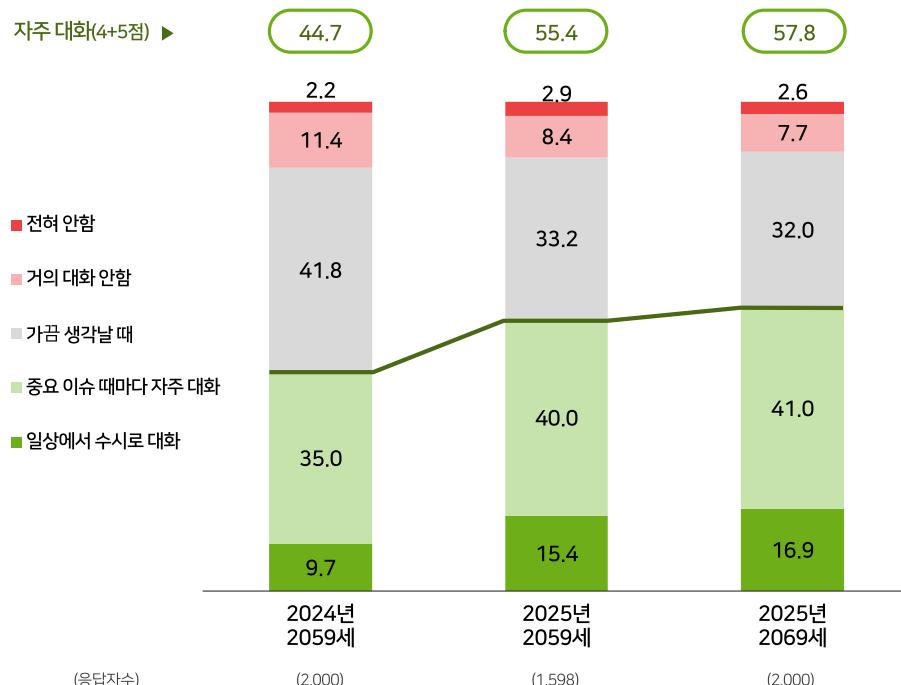
주) 지역*: 일반샘플+관심 지역부스터 샘플 사례수 함께 제시 16page

기후 변화 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대응 행동

- 전체 응답자의 57.8%가 기후 변화에 대해 자주 대화하는 편이며, 이는 '24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한 수준
- 반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의향은 5.7개로 작년과 유사하며, 세부 활동 비중도 작년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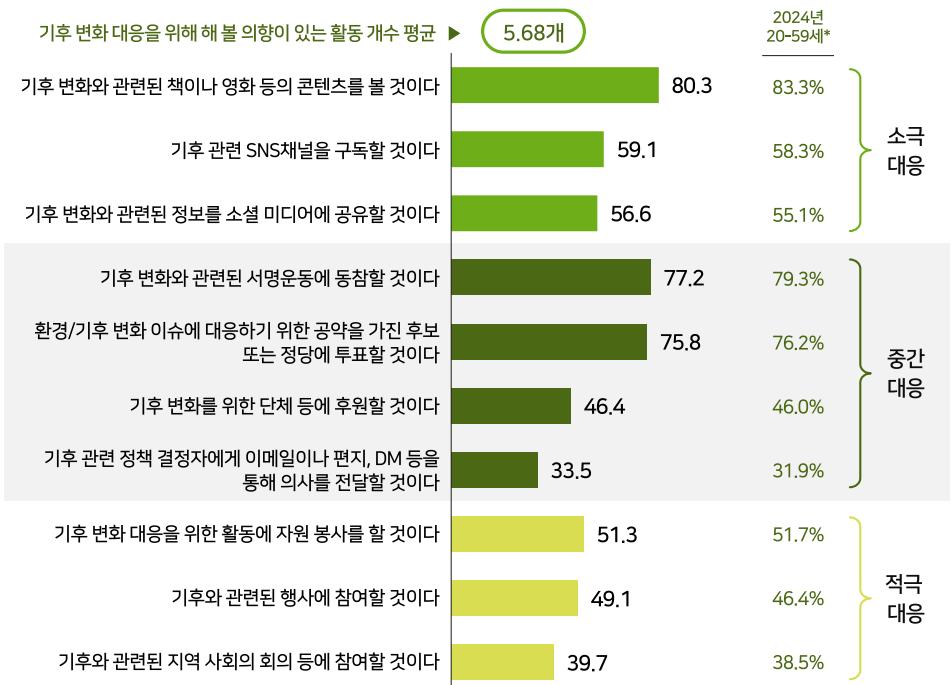
❶ 기후 변화 관련 커뮤니케이션 빈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❷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의향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Q. 귀하께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 친구나 가족 등 지인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시나요?

Q.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잘 읽고 향후에 해 볼 의향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를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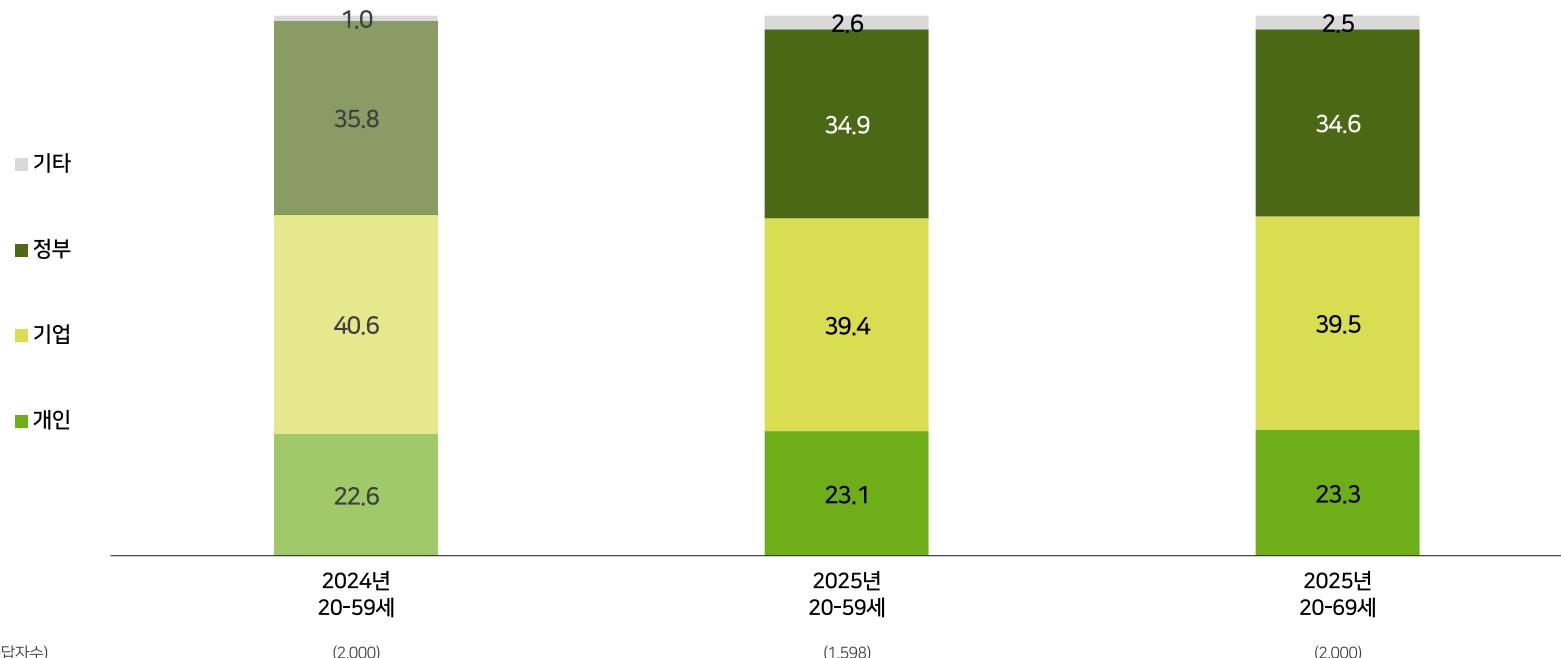
17page

기후 변화의 책임 주체: '24년 vs. '25년

- 기후 변화에 대해 “**기업**”의 책임 비중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 개인 순으로 응답되어 **작년('24년)과 유사**

❸ 기후 변화의 책임 주체

[복수응답,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Q. 기후 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8page

기후 변화의 책임 주체 by Target

- 기후 변화의 책임 주체 비중이 “기업” > “정부” > “개인”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지역, 성, 연령 별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일반표본 (2,000)	지역(일반+부스터)*												성별		연령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Base)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300) (999) (1,001) (335) (385) (418) (460) (402)																		
개인		23.3	23.1	24.2	22.7	24.4	23.8	23.9	23.2	22.3	23.1	22.3	24.2	22.4	24.2	21.8	23.4	23.2	23.5	24.4
기업		39.5	39.0	40.3	38.4	39.4	39.9	39.6	40.0	41.1	39.1	40.0	40.1	39.6	39.4	39.1	38.1	39.3	40.9	40.0
정부		34.6	35.2	34.0	35.9	34.3	33.3	34.1	34.2	34.1	33.9	34.2	33.1	35.1	34.1	36.3	35.8	34.4	33.8	33.2
기타		2.5	2.7	1.5	3.1	1.9	3.0	2.3	2.7	2.5	4.0	3.6	2.6	2.9	2.2	2.8	2.7	3.1	1.8	2.3

Q. 기후 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각 주체별 책임 정도의 합이 100이 되도록 적어주세요.

19page

Part 2

주요 조사 결과

2.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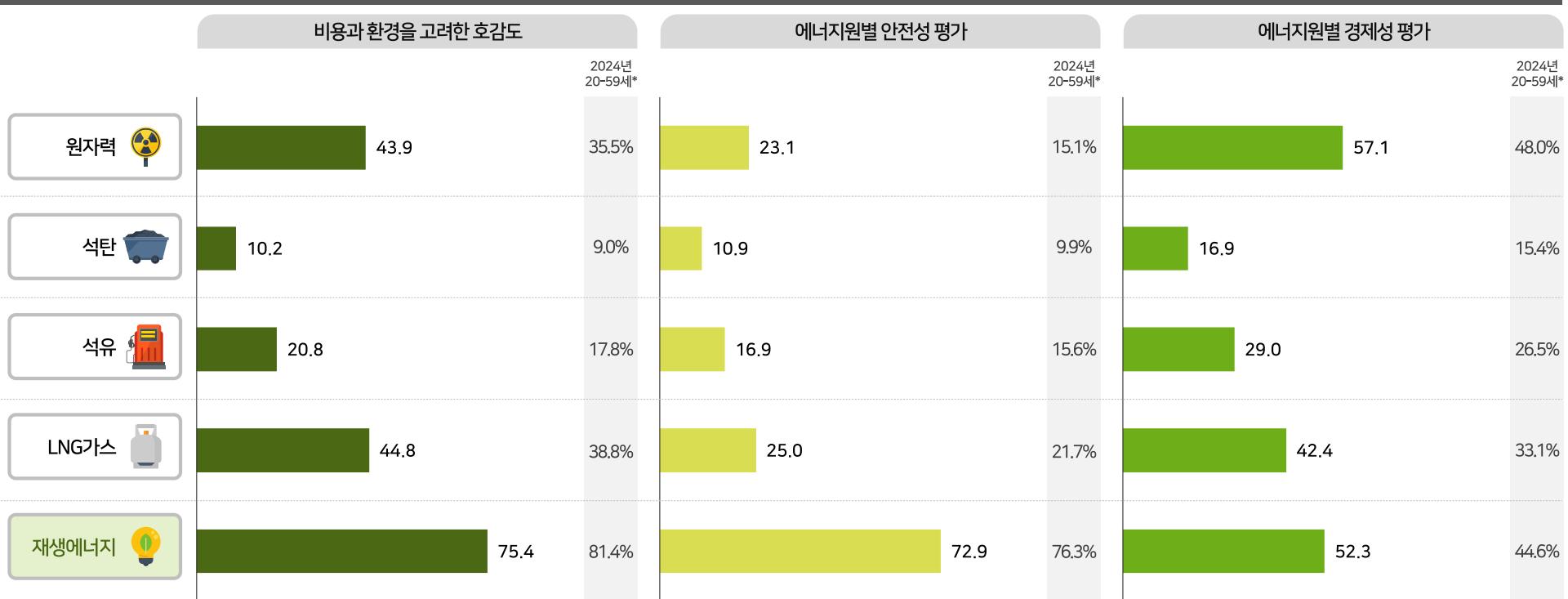
- 1) 에너지원에 대한 평가
- 2)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인식
- 3) 재생에너지 이미지
- 4)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 5)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태도
- 6)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인식
- 7) 에너지 전환의 장애물
- 8) 전기요금 추가 납부 의향

에너지원에 대한 평가

- 에너지원별 전반적 평가를 살펴보면, 다른 에너지원 대비 재생에너지의 긍정 평가가 전반적으로 높음
- 경제성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보다 원자력(57.1%)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 받음

④ 에너지원별 평가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Top2%]



Q. 각 에너지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1page

에너지원에 대한 평가 by 지역

- 재생에너지에 대한 '호감도', '안전성', '경제성' 모두 높은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인천, 호남, 연령으로는 50대의 평가가 특히 높음**
- 대구는 원자력에 대한 평가가 타지역 대비 높은 편**

② 에너지원별 평가 by 지역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Top2%]

	일반표본	지역(일반+부스터)*										연령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Base)	(2,000)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300)	(335)	(385)	(418)	(460)	(402)	
비용과 환경을 고려한 호감도	원자력	43.9	46.8	50.0	52.7	43.1	25.3	46.9	41.0	39.3	43.7	47.0	30.7	43.6	42.9	38.5	40.9	54.2
	석탄	10.2	13.0	12.9	11.5	6.3	6.3	9.9	8.8	6.3	7.3	8.7	7.3	15.2	12.7	11.2	6.1	7.2
	석유	20.8	24.7	19.7	20.6	19.5	15.8	21.0	19.2	16.0	18.3	17.7	17.0	26.6	24.4	16.7	19.3	18.4
	LNG가스	44.8	44.2	51.1	48.1	44.8	43.2	46.9	42.9	43.0	47.3	46.7	49.7	27.8	39.2	42.6	49.1	61.4
	재생에너지	75.4	75.1	73.0	68.7	81.0	81.1	74.1	75.4	79.7	72.0	74.7	81.7	66.3	71.4	77.0	84.8	74.4
안전성 평가	원자력	23.1	25.6	25.8	30.5	20.7	12.6	25.9	20.6	21.7	23.0	27.7	16.7	23.3	21.8	16.5	19.8	34.8
	석탄	10.9	12.6	15.7	9.2	6.9	10.5	11.1	9.9	8.0	10.3	10.3	9.0	15.8	10.9	9.8	8.3	10.7
	석유	16.9	20.4	15.2	12.2	16.7	15.8	21.0	15.4	12.3	16.7	19.0	11.0	24.2	20.0	12.4	13.9	15.7
	LNG가스	25.0	25.6	25.3	26.7	25.9	20.0	35.8	23.9	20.7	34.3	28.7	21.0	18.2	19.5	23.2	26.1	36.3
	재생에너지	72.9	73.1	77.5	66.4	81.0	72.6	72.8	71.3	73.0	72.3	68.3	71.0	65.4	67.3	74.2	80.4	74.6
경제성 평가	원자력	57.1	60.1	61.8	64.1	58.0	45.3	56.8	54.2	51.7	55.7	58.7	49.3	57.3	56.4	55.3	56.1	60.4
	석탄	16.9	18.2	15.2	19.1	13.8	17.9	21.0	16.1	12.3	10.3	14.0	14.3	26.3	20.8	17.2	10.7	11.9
	석유	29.0	34.0	30.9	26.7	27.6	22.1	25.9	26.2	18.7	26.0	24.7	23.7	42.7	34.8	27.8	22.8	20.1
	LNG가스	42.4	39.9	43.8	46.6	40.8	37.9	40.7	43.4	41.3	43.0	42.0	37.7	33.1	34.0	42.8	45.7	53.7
	재생에너지	52.3	51.8	49.4	48.1	54.6	69.5	55.6	52.0	60.7	58.3	57.0	61.7	31.9	41.8	53.8	68.5	59.2

Q. 각 에너지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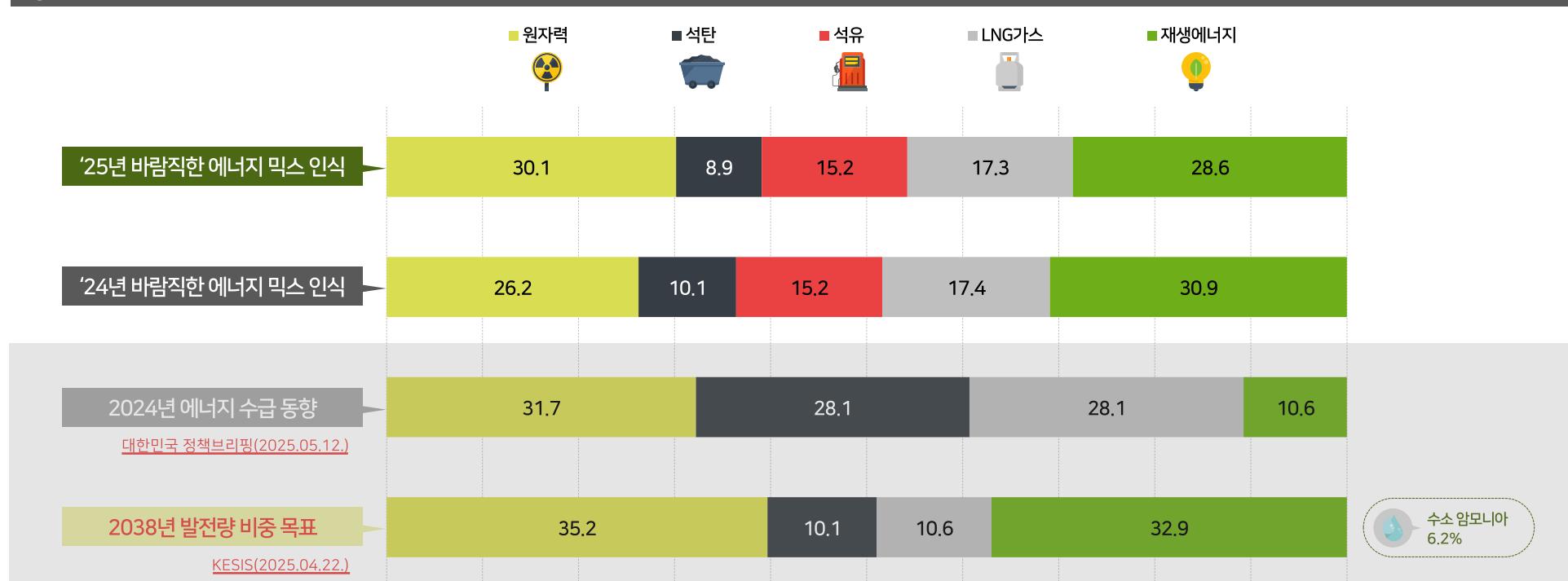
주) 지역*: 일반샘플+관심 지역부스터 샘플 사례수 함께 제시 22page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인식

- 대중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전력 생산의 에너지 비중은 “원자력 > 재생에너지 > LNG가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
24년 대비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적
- 우리나라의 2038년 발전량 비중 목표와 비교했을 때, 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원의 비중은 유사

④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M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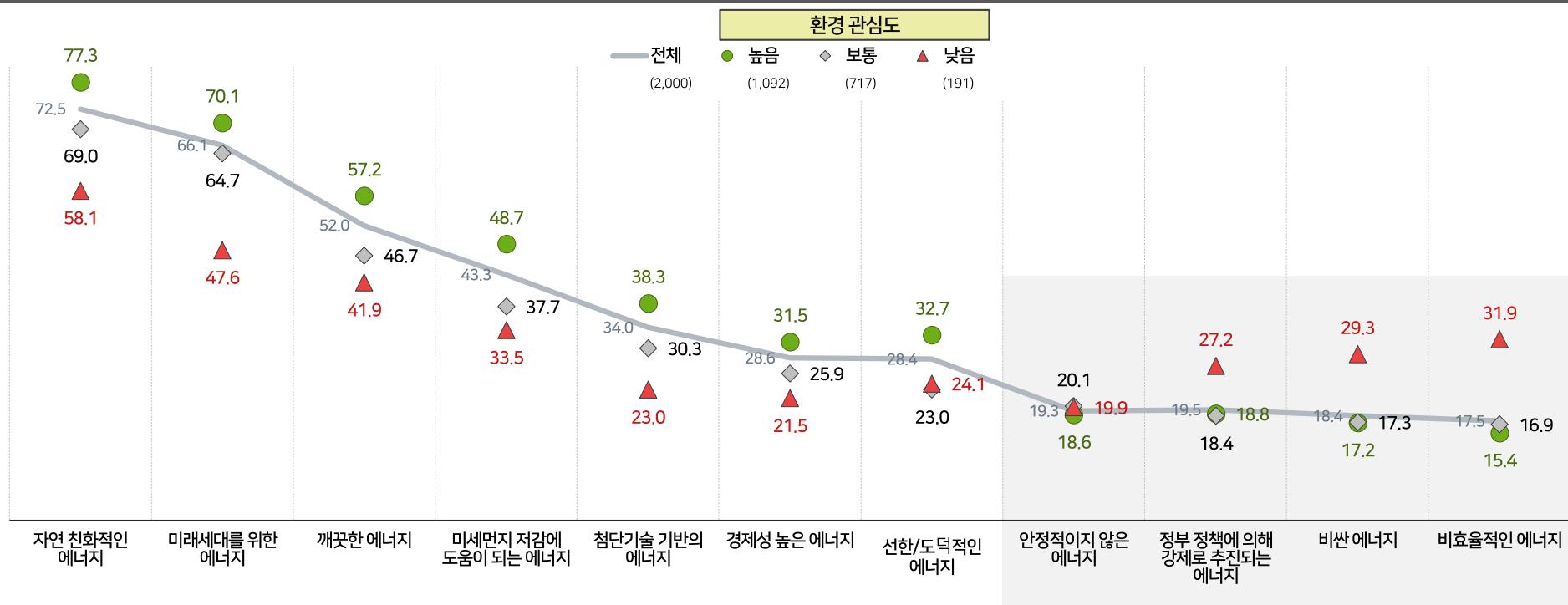


재생에너지 이미지

- 재생에너지에 대해 '자연친화적,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등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위에 다수 응답된 가운데, 특히 환경 관심도가 높은 응답자들의 긍정 이미지 평가가 높음
- 환경 관심도가 낮은 응답자의 경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정책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는, 비싼, 비효율적인 에너지'처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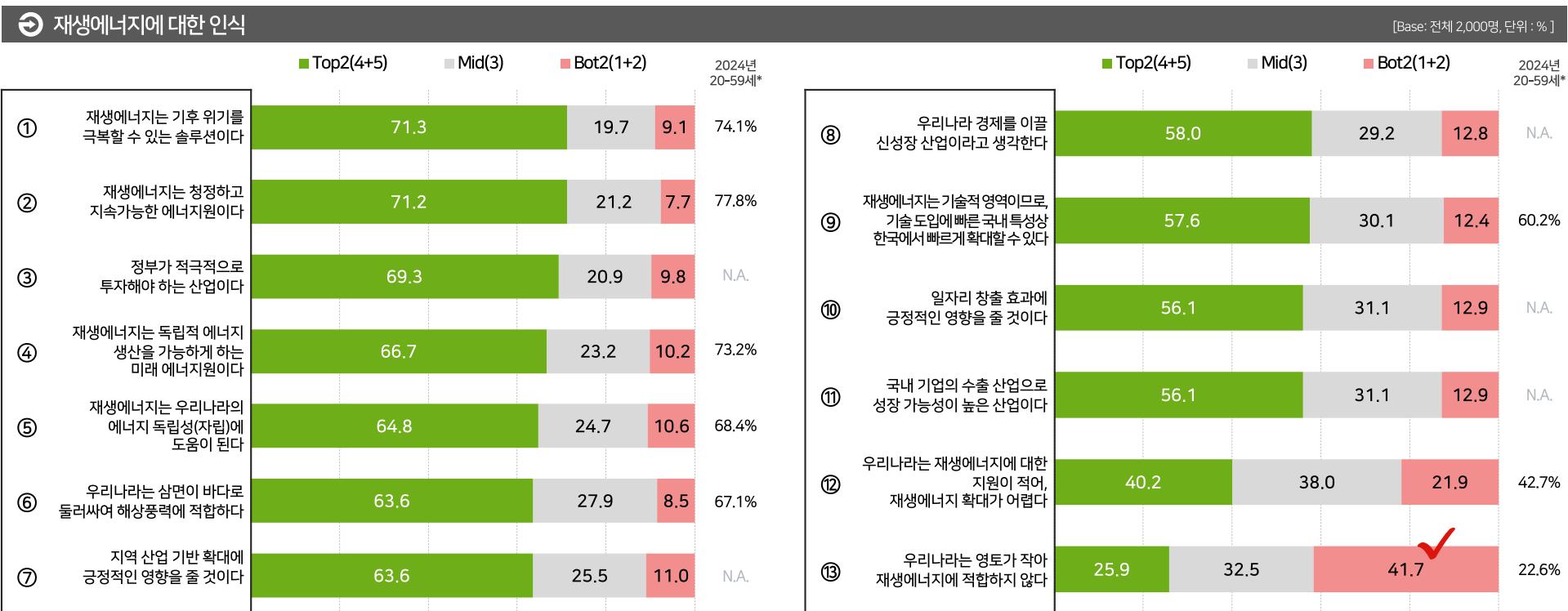
② 재생에너지 이미지 평가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복수응답, 단위: %]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 응답자들의 다수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기후 위기 솔루션(①)', '청정 에너지(②)',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③)' 등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에너지 독립성(④, ⑤), 해상풍력 적합성(⑥) 등에 대한 평가도 60%대로 높은 편으로, 시민들은 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토가 작아 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다(⑬)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많으나, 41.7%로 적합하다는 인식은 절반 미만임
→ 태도/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정적 인식과 오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



Q. 다음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를 골라주세요.

[참고] N.A.는 '25년 신규항목

25page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by Target

- 인천, 여성, 50대, 환경 관심도 , 진보 성향 집단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음

	일반표본	지역(일반+부스터)*												성별		연령				환경 관심도			정치성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관심 많은편	보통	관심 적은편	보수	중도	진보
(Base)	(2,000)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999)	(1,001)	(335)	(385)	(418)	(460)	(402)	(1,092)	(717)	(191)	(586)	(711)	(703)	
① 재생에너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71.3	72.0	73.0	63.4	72.4	75.8	64.2	71.7	71.7	70.0	71.0	74.0	66.0	76.5	60.9	63.1	72.7	82.4	73.4	79.5	64.6	49.2	59.4	66.1	86.3
② 재생에너지는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다	71.2	69.9	77.5	60.3	77.0	72.6	66.7	71.3	72.7	68.7	67.7	72.7	66.8	75.6	62.4	64.9	71.1	81.3	73.1	79.5	63.6	52.4	58.4	65.8	87.3
③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산업이다	69.3	67.9	70.8	58.0	75.3	73.7	69.1	69.9	73.7	64.3	71.7	72.0	63.4	75.2	59.4	67.0	69.1	78.7	69.2	77.0	63.5	47.1	55.5	63.0	87.2
④ 재생에너지는 독립적 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에너지원이다	66.7	62.9	73.0	61.8	69.5	69.5	64.2	67.5	70.0	66.7	63.0	67.3	61.8	71.5	55.8	60.8	67.5	77.4	68.2	74.1	60.7	46.6	55.8	62.4	79.9
⑤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독립성(자립)에도움이 된다	64.8	62.3	64.6	55.7	71.3	67.4	66.7	66.6	64.3	61.3	62.3	64.7	60.1	69.4	54.9	62.9	64.8	76.7	60.9	73.1	57.7	43.5	51.5	59.1	81.5
⑥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상풍력에 적합하다	63.6	60.9	67.4	47.3	67.8	67.4	64.2	66.2	68.7	62.3	63.7	65.3	60.1	67.1	60.0	60.8	64.8	72.6	57.7	69.1	58.9	49.7	52.7	59.2	77.1
⑦ 지역 산업 기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63.6	61.2	62.9	56.5	69.0	72.6	60.5	64.8	65.7	64.0	61.3	67.3	56.5	70.6	54.0	59.5	67.5	73.0	60.4	71.9	55.6	45.5	49.5	58.1	80.8
⑧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신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58.0	57.0	60.1	47.3	62.1	63.2	60.5	58.4	60.3	57.0	57.7	58.0	52.4	63.6	46.3	51.9	60.5	70.4	56.7	65.9	51.6	36.6	44.5	54.3	73.0
⑨ 재생에너지는 기술적 영역이므로, 기술 도입에 빠른 국내 특성상 한국에서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	57.6	60.1	54.5	49.6	59.2	55.8	55.6	57.2	63.0	58.0	60.0	58.3	54.5	60.6	44.2	52.7	59.1	69.8	57.7	65.1	50.9	39.3	48.1	51.3	71.7
⑩ 국내 기업의 수출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57.2	55.1	57.9	48.9	57.5	65.3	59.3	58.4	60.3	58.7	56.7	60.3	52.7	61.6	46.0	49.9	59.3	68.9	57.7	65.8	49.8	35.1	46.4	52.2	71.1
⑪ 일자리 창출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56.1	55.5	60.7	48.1	62.1	62.1	44.4	55.8	60.0	58.3	54.0	60.3	50.4	61.7	48.1	53.8	59.3	64.8	51.5	64.2	49.5	34.0	43.5	50.5	72.1
⑫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적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렵다	40.2	43.8	37.1	35.9	43.7	34.7	37.0	40.2	31.3	40.0	44.0	34.7	38.6	41.7	43.0	44.9	39.7	41.7	31.8	43.4	34.4	42.9	39.1	38.1	43.1
⑬ 우리나라는 영토가 작아 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다	25.9	31.0	23.6	23.7	23.6	20.0	24.7	24.3	19.3	23.3	23.7	19.7	30.6	21.2	38.8	34.3	23.7	16.5	20.1	24.9	23.3	41.4	38.6	25.5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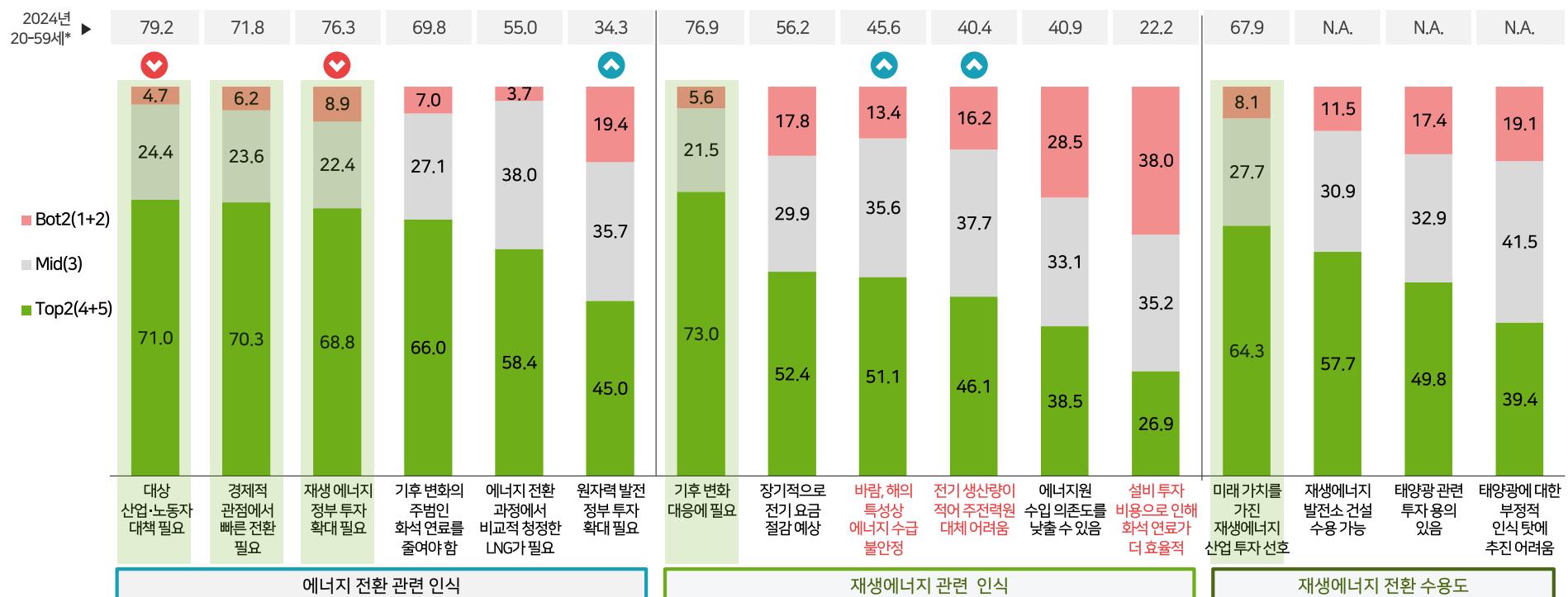
주) 지역*: 일반샘플+관심 지역부스터 샘플 사례수 함께 제시 26page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태도

-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후 변화 대응, 미래 가치 관점에서 필요하며, 전환 대상 산업 및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과 정부 투자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 '24년 대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불안정성(에너지 수급, 주전력 대체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는 높아짐

④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태도

[Base: 전체 2,000명, 5점척도, 단위 : %]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태도 by Target

- 50대, 환경 관심도 , 진보 성향집단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 20대, 환경 관심도 , 보수 성향집단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함

④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태도

[Base: 전체 2,000명, 5점척도, 단위 : 5+4점 %]

	일반표본	지역(일반+부스터)*											성별		연령		환경 관심도		정치성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관심 많은편	보통	관심 작은편	보수	중도	진보	
(Base)	(2,000)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300)	(999)	(1,001)	(335)	(385)	(418)	(460)	(402)	(1,092)	(717)	(191)	(586)	(711)	(703)	
에너지 전환 관련 인식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대상 산업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1.0	69.2	75.8	71.8	71.3	68.4	69.1	71.2	73.7	69.7	72.3	71.3	65.5	76.5	58.8	67.5	74.6	79.6	70.9	78.9	63.7	52.9	62.1	63.7	85.8
	화석연료 산업은 앞으로 저물어갈 산업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빠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70.3	68.5	66.3	66.4	72.4	75.8	67.9	72.0	74.0	67.7	69.7	74.0	67.5	73.1	53.4	64.2	69.4	82.2	77.6	78.8	62.8	49.7	61.9	67.5	80.1
	정부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확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68.8	67.9	70.2	62.6	72.4	73.7	64.2	69.0	70.0	67.3	68.7	75.3	62.5	75.0	60.3	64.2	70.3	79.8	65.9	76.6	62.6	47.1	53.9	62.7	87.2
	화석연료 산업 및 발전은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반드시 줄어들어야 한다	66.0	59.9	68.5	64.1	74.1	67.4	64.2	67.3	69.7	67.3	68.0	70.7	64.4	67.5	57.0	59.7	63.9	75.9	70.1	74.9	58.2	44.0	56.3	60.5	79.5
	LNG가스 발전은 석탄에 비해서는 청정한 것으로, 에너지 전환의 중간 다리 역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58.4	55.1	64.6	60.3	59.8	55.8	60.5	58.9	56.7	59.0	58.0	54.7	61.4	55.3	46.0	51.4	58.6	64.1	68.4	64.5	53.1	42.9	61.6	50.5	63.6
	정부는 원자력 발전 확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45.0	45.8	49.4	53.4	42.5	41.1	44.4	43.3	41.0	45.0	44.0	36.3	50.6	39.5	50.1	41.8	37.6	42.6	54.2	46.2	42.8	46.6	66.9	42.5	29.3
재생 에너지 관련 인식	재생에너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73.0	71.6	68.5	66.4	79.3	73.7	65.4	75.2	74.7	71.3	70.0	74.3	68.0	78.0	60.0	70.9	72.0	81.3	77.4	81.7	65.0	53.4	61.3	67.8	88.1
	화석연료 산업은 이제 저무는 산업으로, 더 큰 미래 가치를 가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좋다	64.3	62.5	65.2	62.6	66.7	62.1	53.1	65.9	67.0	66.0	64.0	64.7	60.8	67.7	51.0	60.3	62.7	73.5	70.1	73.3	56.8	40.8	53.2	58.8	78.9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줄어들 것이다	52.4	50.3	53.4	46.6	51.1	56.8	48.1	55.1	59.3	53.0	47.3	55.0	45.4	59.3	44.8	51.4	50.5	62.0	50.7	60.3	44.2	37.7	41.1	48.7	65.6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이 되는 바람, 해의 특성상 공급이 불안정하여, 에너지 수급 역시 불안정하다	51.1	53.4	48.9	53.4	51.1	42.1	42.0	51.5	41.7	49.0	53.7	42.3	52.6	49.7	57.0	55.3	50.7	45.0	49.5	51.8	47.7	59.7	59.7	48.5	46.5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의 양이 매우 적어, 재생에너지를 주 전력원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46.1	49.0	47.2	42.0	45.4	30.5	37.0	47.5	36.0	46.3	47.0	37.7	46.8	45.4	46.9	49.4	45.7	41.5	48.0	47.7	42.3	51.3	58.4	43.3	38.7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우리나라에는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원 수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38.5	35.1	36.5	34.4	44.3	45.3	28.4	40.8	43.7	38.0	32.7	44.0	34.5	42.4	36.7	37.7	40.2	43.5	33.1	44.7	31.8	27.7	30.9	36.1	47.1
재생 에너지 전환 수용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하기에,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 발전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26.9	28.6	30.3	22.9	19.0	28.4	23.5	27.5	22.7	23.0	26.7	21.7	27.2	26.5	34.9	27.5	27.0	23.9	22.6	29.0	24.3	24.1	33.1	27.8	20.6
	내가 사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태양광, 풍력 등)가 건설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	57.7	56.6	59.6	54.2	56.3	61.1	49.4	58.3	66.0	56.0	56.3	61.3	56.9	58.4	59.7	51.9	56.7	64.1	55.0	66.3	48.5	42.4	48.5	48.4	74.7
	여건입지, 인허가, 토지자금 등이 된다면, 개인 태양광 시설이나 태양광 조합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	49.8	47.9	46.6	48.9	52.3	49.5	49.4	50.8	60.0	53.7	52.0	55.3	49.3	50.2	37.3	46.5	51.4	58.7	51.5	59.2	39.7	33.5	42.0	41.4	64.9
	주변 지역과 주민들의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태양광 시설을 달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39.4	41.6	39.9	39.7	33.3	40.0	29.6	40.5	32.0	37.3	37.0	39.0	41.1	37.7	36.1	42.3	42.6	35.2	40.8	42.7	34.4	39.3	42.2	39.7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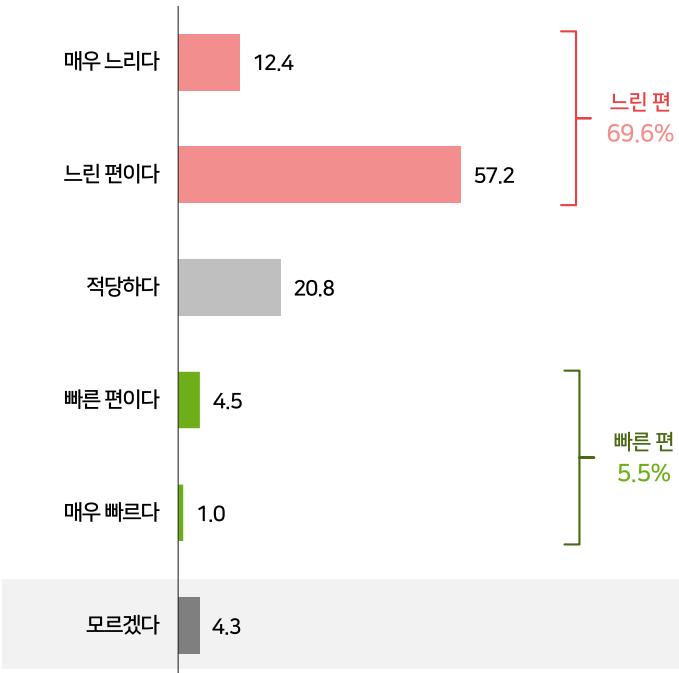
주) 지역*: 일반샘플+관심 지역부스터 샘플 사례수 함께 제시 28page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인식 : 속도, 추진방식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 속도가 "느린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69.6%로 나타남
- 한국의 에너지 전환방식은 공공이 우선 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으로 높음
경남, 호남 지역 응답자와 진보 성향 집단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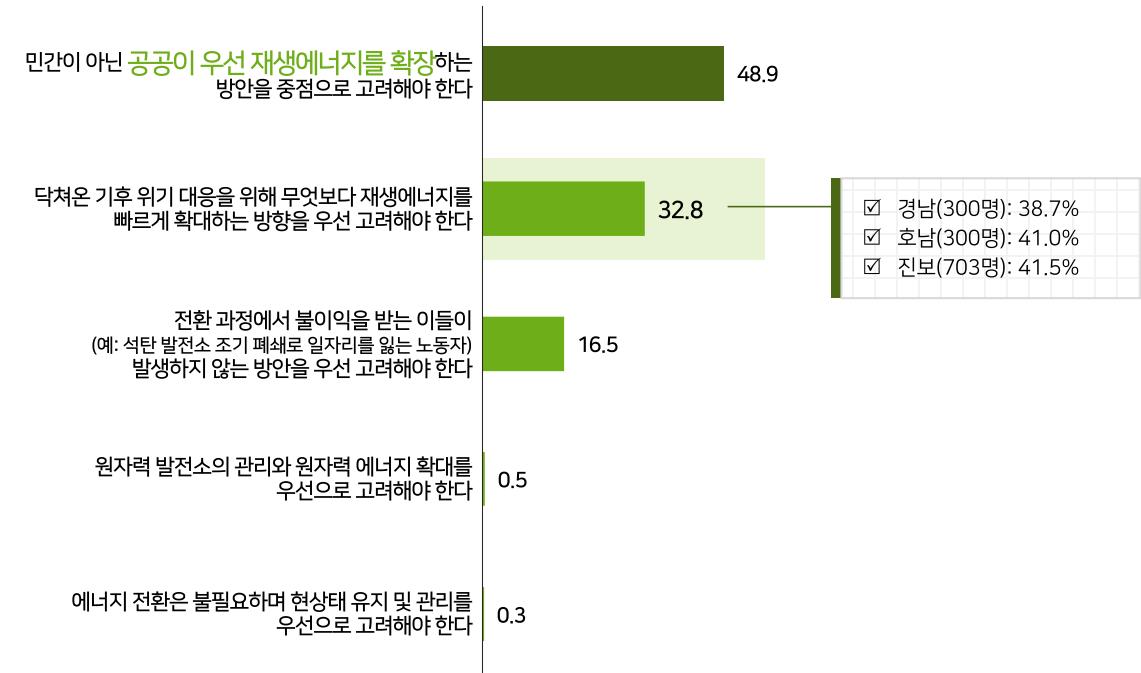
❶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속도 평가

[Base: 전체 2,000명, 단위: %]



❷ 한국의 에너지 전환 추진 방식

[Base: 전체 2,000명, 단위: %]



Q: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한국의 에너지 전환 추진 방식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보기지를 골라 주세요.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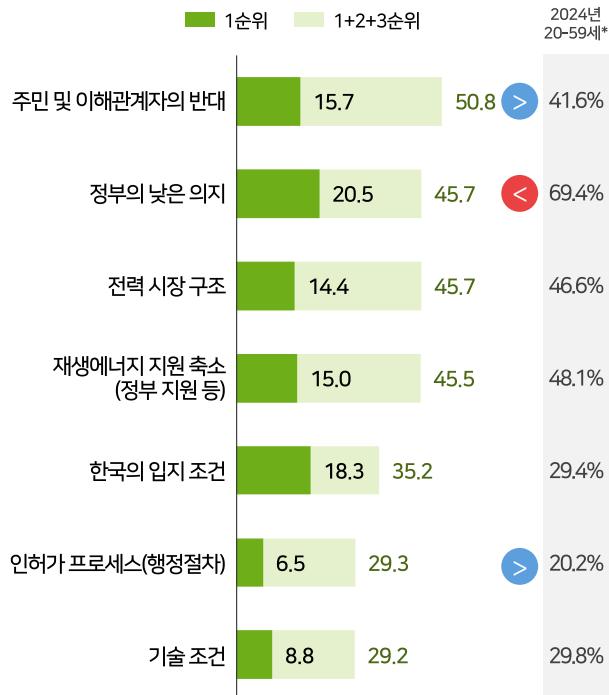
29page

에너지 전환의 장애물 : 확대 저해 원인, 정보 제공, 정치적 영향

- 재생에너지 확대 저해 원인으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정부의 낮은 의지”, “전력 시장 구조” 등이 뒤를 이었음
→ '24년 대비,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반대', '인허가 프로세스'가 많이 응답된데 반해, '정부의 낮은 의지'는 응답률이 23.7%p 감소
-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3.0%로 충분하다(17.0%)는 평가보다 높게 나타남
- 한편,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7.6%로, 에너지 정책을 정부/정치집단 주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여전히 다수임을 알 수 있음

① 재생에너지 확대 저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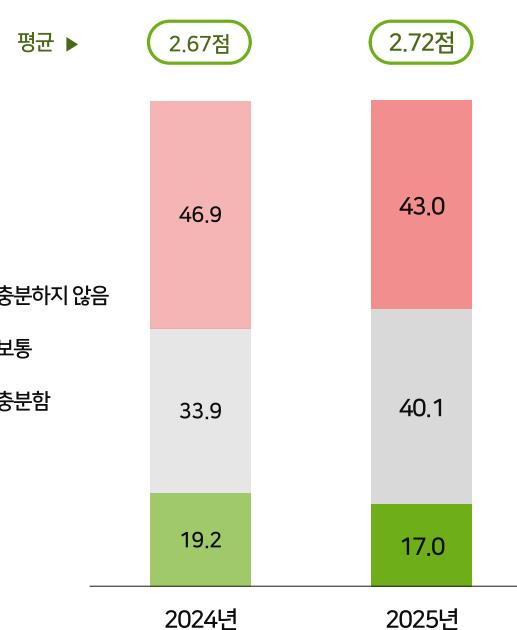
[Base: 전체 2,000명, 단위: %]



Q. 한국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지 않는 것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② 재생에너지 관련 정보 제공 정도

[Base: 전체 2,00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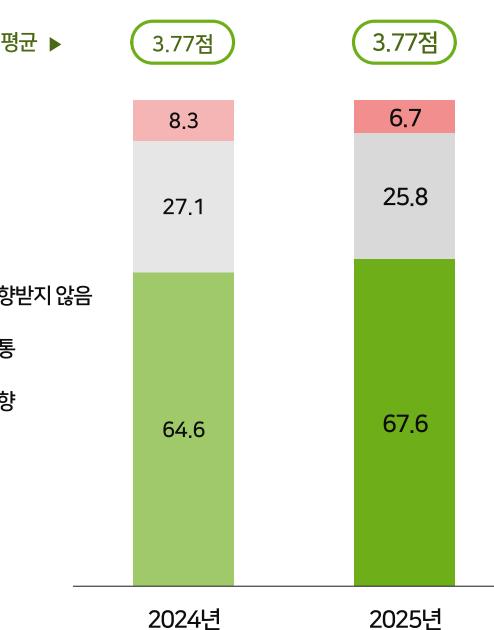


[참고] 2024년은 20~59세만 진행

Q. 한국의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③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정치적 영향

[Base: 전체 2,00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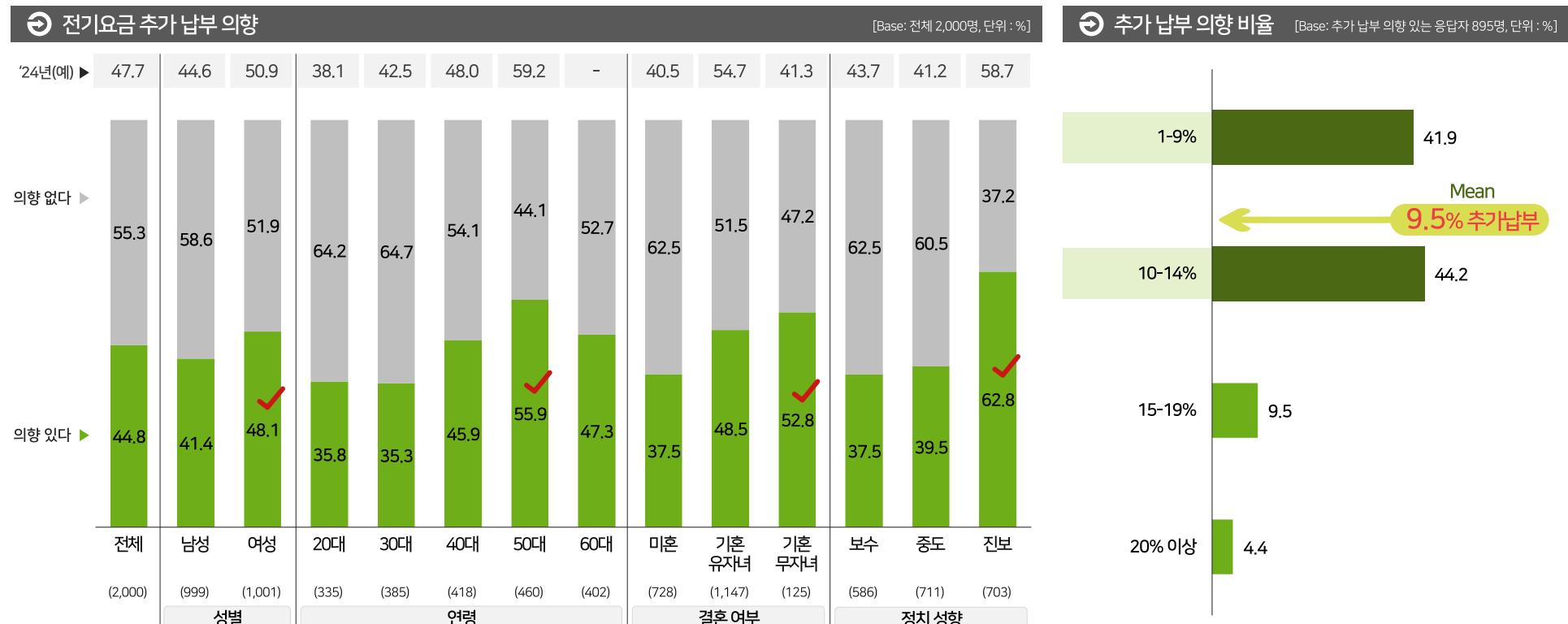


[참고] 2024년은 20~59세만 진행

Q.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성향과 이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기요금 추가 납부 의향

- 전체 응답자의 44.8%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24년 대비 추가 지불 의향이 2.9%p 감소 → 50대, 기혼 무자녀, 진보층에서 추가 납부 의향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추가 납부 의향이 있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은 5~10% 수준의 추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추가 납부률은 현재 대비 9.5% 수준



Q.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더 납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있다면 얼마나 더 납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참고] 2024년은 20~59세만 진행

Part 2

주요 조사 결과

3. 기후 테크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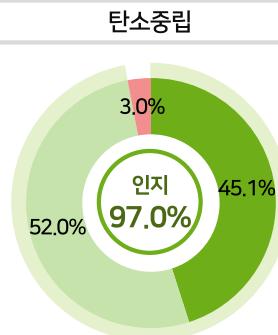
- 1) 에너지 관련 용어 인지도
- 2) 기후 테크 관련 용어 인지
- 3) 미래 먹거리로써의 기후 테크 수용도
- 4) 기후 테크 관련 선행 및 우선 투자 필요 기술
- 5) 정부의 기후 대응 의지
- 6) 정부 주요 공약 인지도 및 수용도
- 7) 에너지 정책 인지도 및 수용도
- 8) 정부 에너지정책 비선호 이유
- 9)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식
- 1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용도

에너지 관련 용어 인지도: 2025년

- 에너지 관련 용어에 대해 “탄소중립” 인지도는 97.0%로 가장 높음, ‘RE100’ 인지도는 63.7%로 낮은 편
- 인지하고 있는 용어 대부분 “정확히 알고 있다”기 보다, ‘들어보았다’ 수준

① 에너지 관련 용어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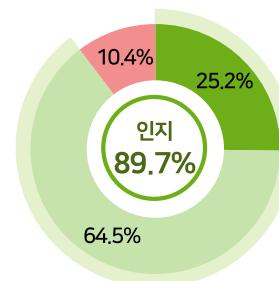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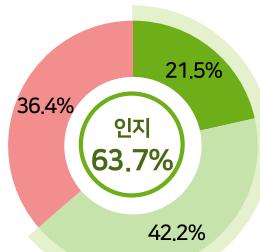
정확히 인지 들어봄 처음 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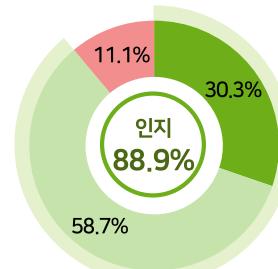
에너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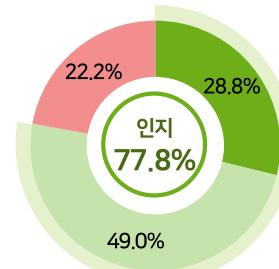
RE100



파리 기후 협약



ESG 경영



Q. 다음 각 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33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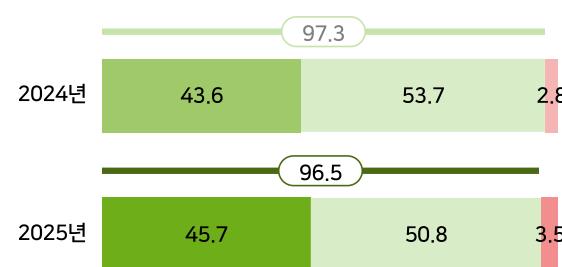
에너지 관련 용어 인지도: '24년 vs. '25년

- 에너지 관련 용어 인지도는 작년과 유사

① 에너지 관련 용어 인지도

[Base: 20~59세, '24년 2,000명, '25년 1,598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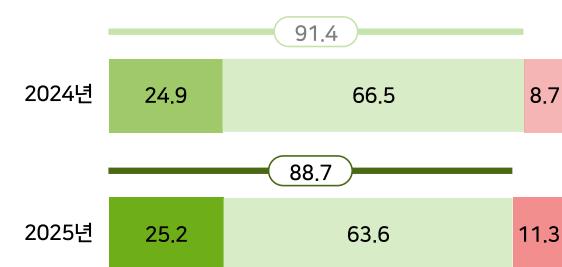
탄소중립



■ 정확히 인지 ■ 들어봄 ■ 처음 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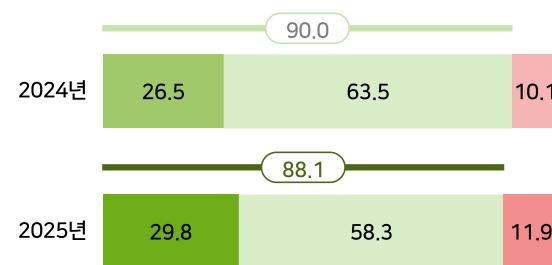
에너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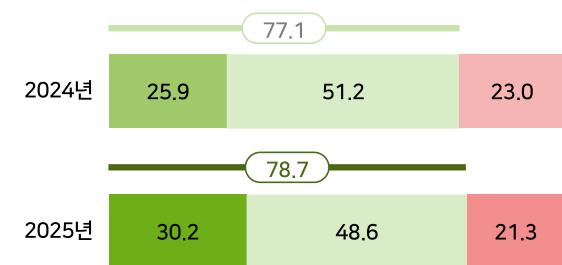
RE100



파리 기후 협약



ESG 경영



에너지 관련 용어 인지도: 2025년 신규 기후 용어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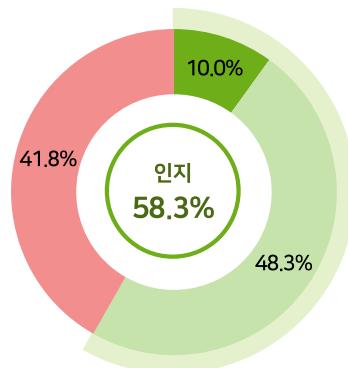
- ‘25년 조사에 추가된 새로운 용어(CBAM, 스마트그리드, PPA)의 인지도는 60% 미만으로 낮은 편, 특히 ‘정확히 알고 있다’ 응답률은 10% 내외

② 에너지 관련 용어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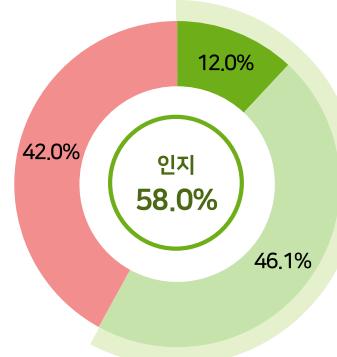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 정확히 인지 ■ 들어봄 ■ 처음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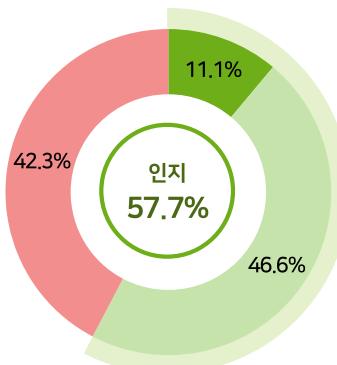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스마트그리드



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에너지 관련 용어 인지도 by Target

- 탄소중립은 인지도가 지역, 성, 환경 관심도 상관 없이 모두 90% 이상으로 높음
- 지역 별로 살펴보면 광주, 대전, 경남은 모든 용어 인지도가 60% 이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
- 나머지 용어는 환경 관심도에 따라 인지도 차이가 많은 가운데,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력구매계약'은 환경 관심도가 낮은 그룹의 인지도가 40% 미만으로 특히 낮음

④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Base: 전체 2,000명, 단위: %]

	일반표본	지역(랜덤+부스터)*										연령		환경 관심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2039세	4069세	관심 많은편	보통	관심 적은편	
(Base)	(2,000)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300)	(720)	(1,280)	(1,092)	(717)	(191)	
탄소중립	45.1	97.0	96.7	97.2	96.2	98.3	95.8	100.0	96.8	98.3	96.3	96.7	97.3	95.0	98.1	98.2	96.4	92.7
에너지전환	25.2	89.7	90.7	89.9	88.5	91.4	89.5	82.7	88.9	90.7	92.0	91.0	88.3	85.8	91.8	92.3	89.0	77.0
파리 기후협약	30.3	88.9	89.1	89.9	90.1	85.6	87.4	86.4	89.2	90.3	87.7	89.3	87.7	85.7	90.7	92.9	84.7	81.7
ESG 경영	28.8	77.8	81.4	74.2	77.9	74.7	87.4	81.5	75.5	72.0	79.0	73.0	75.3	79.7	76.7	80.8	74.8	72.3
RE100	21.5	63.7	65.7	62.9	55.0	59.8	70.5	72.8	63.0	62.7	64.3	63.3	68.3	56.5	67.7	65.8	63.0	53.9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10.0	58.3	58.6	59.0	61.8	55.2	60.0	67.9	56.2	58.3	61.7	59.3	63.0	46.3	65.0	63.6	55.6	37.7
스마트그리드	12.0	58.0	61.0	56.2	57.3	58.0	60.0	59.3	55.6	74.0	62.0	56.0	60.7	51.3	61.8	62.4	55.9	40.8
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11.1	57.7	57.3	60.1	57.3	54.0	67.4	65.4	56.2	57.7	63.3	61.0	62.0	42.6	66.2	62.6	56.6	33.5

Q. 다음 각 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36page

[참고] 환경 관심도 by Target

- 환경 관심도가 높은 집단에는 기혼, 유자녀, 기후 변화에 체감도가 높은 응답자가 많음
- 환경 관심도가 낮은 집단에는 2·30대 남성, 수도권, 미혼, 보수 성향 응답자가 많으며, 기후 변화 체감도도 낮은 편

	샘플구분 랜덤	환경 관심도		
		관심 많은 편	보통	관심 적은 편
(Base)	(2,000)	(1,092)	(717)	(191)
■ 성X연령 ■				
20대 남성	8.5	6.0	8.9	20.4
30대 남성	9.9	6.8	12.1	19.4
40대 남성	10.5	10.1	11.7	8.4
50대 남성	11.4	10.4	12.7	11.5
60대 남성	9.8	11.1	8.6	6.3
20대 여성	8.3	7.2	9.2	11.0
30대 여성	9.4	9.5	9.1	9.4
40대 여성	10.4	10.4	11.2	7.3
50대 여성	11.7	14.8	8.8	4.2
60대 여성	10.4	13.6	7.7	2.1
■ 지역 ■				
수도권	74.7	75.1	72.4	81.2
비수도권	25.3	24.9	27.6	18.8
■ 결혼 여부 ■				
기혼	63.6	69.7	59.7	43.5
미혼	36.4	30.3	40.3	56.5
■ 자녀 유무 ■				
있음	57.4	63.7	53.6	35.1
없음	6.3	6.0	6.1	8.4
■ 막내 자녀 나이 ■				
미취학	5.9	6.0	5.7	5.8
초등학생	8.6	8.6	9.5	5.2
중고생	8.8	9.8	7.9	5.8
성인	34.2	39.4	30.4	18.3
■ 직업 ■				
화이트칼라	48.1	47.3	50.1	45.0
블루칼라	21.2	21.3	20.6	22.0
전업주부	15.0	17.2	14.2	4.7
무직/기타	15.9	14.2	15.1	28.3
■ 최종학력 ■				
고졸 이하	21.1	20.1	20.5	28.8
대학교 졸업	67.2	66.7	69.7	60.7
대학원 졸업 이상	11.8	13.3	9.8	10.5

	샘플구분 랜덤	환경 관심도		
		관심 많은 편	보통	관심 적은 편
(Base)	(2,000)	(1,092)	(717)	(191)
■ 월 평균 가구소득 ■				
300만원 미만	19.9	17.1	23.0	24.1
300~500만원 미만	28.3	26.1	31.9	26.7
500~700만원 미만	24.3	26.0	21.5	24.6
700만원 이상	27.6	30.8	23.6	24.6
■ 월 평균 개인소득 ■				
300만원 미만	52.3	50.1	54.5	56.0
300~500만원 미만	28.5	28.0	27.8	33.5
500~700만원 미만	11.6	12.6	11.3	6.8
700만원 이상	7.7	9.2	6.4	3.7
■ 정치성향 ■				
보수	29.3	27.2	29.6	40.3
중도	35.6	33.1	38.5	38.7
진보	35.2	39.7	31.9	20.9
■ 사회경제적 계층 ■				
하	6.2	4.9	7.3	9.9
중하	30.7	29.5	32.4	30.9
중	47.2	47.3	46.4	49.7
중상 이상	16.0	18.4	13.9	9.4
■ 기후 변화 체감도 ■				
체감하지 못하는 편	2.1	0.7	1.3	12.6
보통	8.8	3.4	15.1	16.2
대체로 체감	55.9	50.0	64.9	55.5
확실히 체감	33.3	45.9	18.8	15.7
■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속도 인지 ■				
매우 느림	12.4	13.9	12.3	4.2
느린 편	57.2	60.4	52.3	56.5
적당함	20.8	16.5	26.5	23.6
빠른 편	5.5	6.2	4.0	6.3
모르겠음	4.3	2.9	4.9	9.4
■ 기후 태크 인지여부 ■				
모름/없음	37.2	30.7	43.1	51.8
자세히는 모름	45.5	47.6	44.6	36.1
인지	17.4	21.7	12.3	12.0

기후 테크 관련 용어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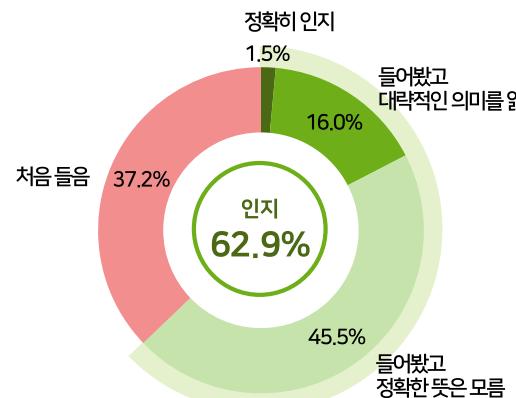
- ‘기후 테크’ 용어 인지도는 62.9%, 정확히 알고 있다는 1.5% 수준에 그침
- 기후 테크 관련 기술 중 ‘탄소포집 및 저장’, ‘가상발전소’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기후 테크 용어 인지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기후 테크(Climate Tech)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말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공기 중 탄소포집·저장 기술, 자원순환 기술, 식품 생산 등에서 탄소감축 기술,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지오테크 등의 분야가 포함됩니다.



▣ 기후 테크 관련 기술인지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정확히 인지 ■ 들어봄 ■ 처음 들음



기후 테크에 대한 인식 by Target

- 광주 지역은 전반적으로 기후 테크 및 관련 기술 인지도가 50% 이상으로 높은 편

④ 기후 테크관련 용어 인지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일반표본	지역(랜덤+부스터)*												연령		환경 관심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2039세	4069세	관심 많은편	보통	관심 적은편	
(Base)	(2,000)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300)	(720)	(1,280)	(1,092)	(717)	(191)	
기후 테크	62.9	63.1	64.6	62.6	62.6	68.4	70.4	61.2	63.7	65.3	59.7	63.3	58.2	65.5	69.3	56.9	48.2	
에너지저장장치(ESS)	70.9	73.3	72.5	72.5	71.3	71.6	72.8	68.2	71.7	72.3	75.3	71.7	61.1	76.4	75.9	67.1	56.5	
가상발전소(VPP)	42.2	44.5	35.4	42.0	33.3	50.5	43.2	43.3	45.3	45.0	42.3	47.7	36.5	45.3	46.4	39.9	26.2	
탄소포집 및 저장(CCUS)	59.6	58.8	62.4	59.5	60.3	60.0	61.7	59.3	60.7	62.7	62.3	64.3	50.6	64.6	64.6	57.0	40.3	
폐자원 업사이클링	80.8	81.3	76.4	81.7	82.2	73.7	72.8	81.7	83.7	79.7	79.7	75.0	77.6	82.5	84.2	78.9	68.1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77.3	80.3	79.8	76.3	74.7	77.9	82.7	74.3	81.3	80.7	80.7	79.0	71.5	80.5	82.0	74.2	62.3	
대체 단백질	68.0	71.1	70.8	66.4	69.5	68.4	70.4	65.3	62.3	68.0	61.3	65.0	70.6	66.6	71.4	65.8	56.5	

Q. 이전에 해당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 지역*: 일반샘플+관심 지역부스터 샘플 사례수 함께 제시 39page

미래 먹거리로써의 기후 테크 수용도

- 기후 테크는 '기후 대응을 위한 기술인 동시에 경제적 기회'라는 것에 66.0%가 동의
- 20-39세와 환경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기술 개발은 중요하지만, 산업화나 수익화는 쉽지 않음'에 동의 정도가 45% 이상으로 전체(39.0%) 대비 높은 편

❶ 기후 테크관련 용어 인지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일반표본	지역(랜덤+부스터)*												연령		환경 관심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2039세	4069세	관심 않은편	보통	관심 적은편	
(Base)	(2,000)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300)	(720)	(1,280)	(1,092)	(717)	(191)	
기후 대응을 위한 기술인 동시에 경제적 기회	66.0	69.0	63.5	67.2	58.6	66.3	61.7	65.4	64.3	70.0	63.0	69.0	57.6	70.6	69.6	62.5	58.1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신산업	49.7	49.5	48.9	48.9	55.7	42.1	53.1	49.2	52.3	49.0	53.7	48.7	41.3	54.5	56.0	43.5	37.2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성이 큰 산업	46.2	45.1	43.8	36.6	47.7	43.2	53.1	48.1	47.0	44.7	49.0	48.0	39.3	50.1	50.0	44.2	31.9	
기술 개발은 중요하지만, 산업화나 수익화는 쉽지 않음	39.0	41.0	42.1	42.7	39.1	31.6	38.3	37.0	35.0	39.7	35.7	33.3	46.9	34.5	38.1	37.9	47.6	
아직 기후 테크가 무엇인지 잘 모름	4.8	3.5	5.1	5.3	4.6	2.1	2.5	6.0	8.3	5.3	7.0	3.3	6.7	3.8	2.8	7.4	6.3	

Q. '기후 테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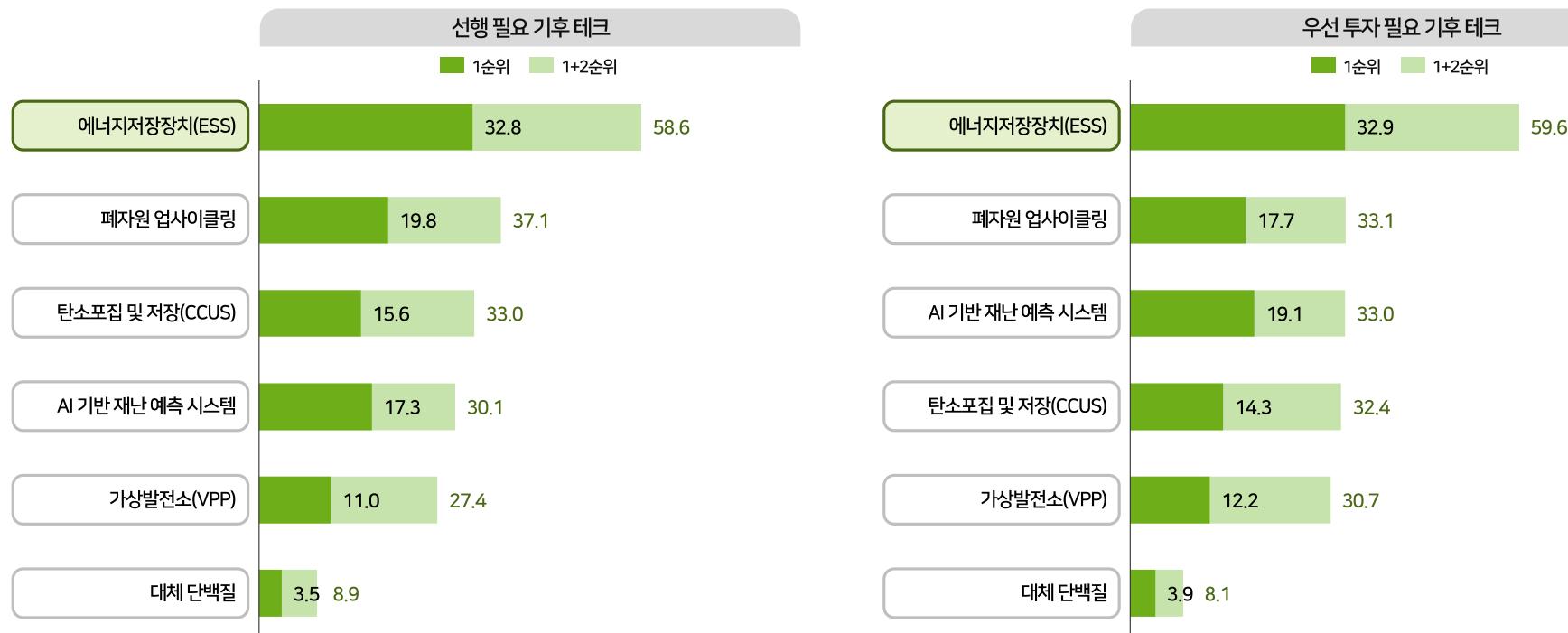
주) 지역*: 일반샘플+관심 지역부스터 샘플 사례수 함께 제시 40page

기후 테크 관련 선행 및 우선 투자 필요 기술

- 선행되어야 하거나, 우선 투자 필요 기후 테크로 '에너지 저장장치(ESS)' 응답률은 약60%로 1위
- '대체 단백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의 필요도는 30% 대 수준으로 응답됨

② 기후 테크관련 평가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Top2%]



Q. 어떤 기술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2개를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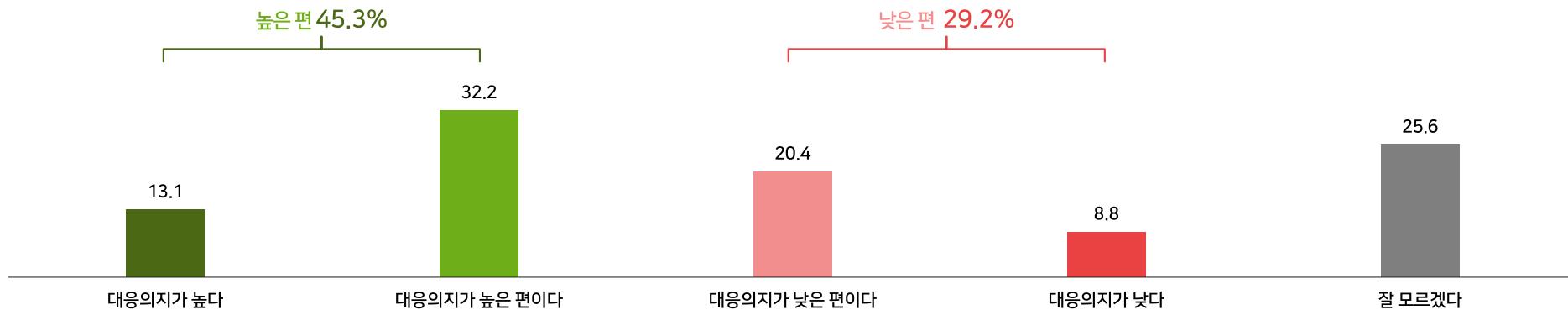
Q. 주요 기후 테크 기술 중 정부가 어떤 기술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2개를 골라주세요. 41page

정부의 기후 대응 의지

- 정부의 기후 대응 의지에 대한 평가는 기온 차가 있는 편, 45.3%라 높은 편이라고 인식, 반면 잘 모르겠다고 25.6%로 높음
- 호남과 제주, 정치적 진보 성향 집단은 정부의 기후 대응 의지가 높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20-39세, 환경 관심도가 보통+적은 편, 정치적 보수+중도는 낮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높음

② 정부의 기후 대응 의지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랜덤	지역(랜덤+부스터)*												연령		환경 관심도			정치성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2039세	4069세	관심 많은편	보통	관심 적은편	보수	중도	진보	
(Base)	(2,000)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300)	(720)	(1,280)	(1,092)	(717)	(191)	(586)	(711)	(703)	
높은 편	45.3	44.9	42.1	42.0	42.0	54.7	40.7	46.6	51.0	44.7	47.7	60.3	36.3	50.3	49.0	42.7	33.5	32.4	31.9	69.4	
낮은 편	29.2	31.7	33.7	31.3	30.5	27.4	30.9	25.6	28.3	28.7	31.0	17.3	32.5	27.3	30.6	26.6	30.4	42.5	34.2	12.9	
잘 모르겠다	25.6	23.4	24.2	26.7	27.6	17.9	28.4	27.8	20.7	26.7	21.3	22.3	31.3	22.4	20.4	30.7	36.1	25.1	33.9	17.6	

Q: 이번 이재명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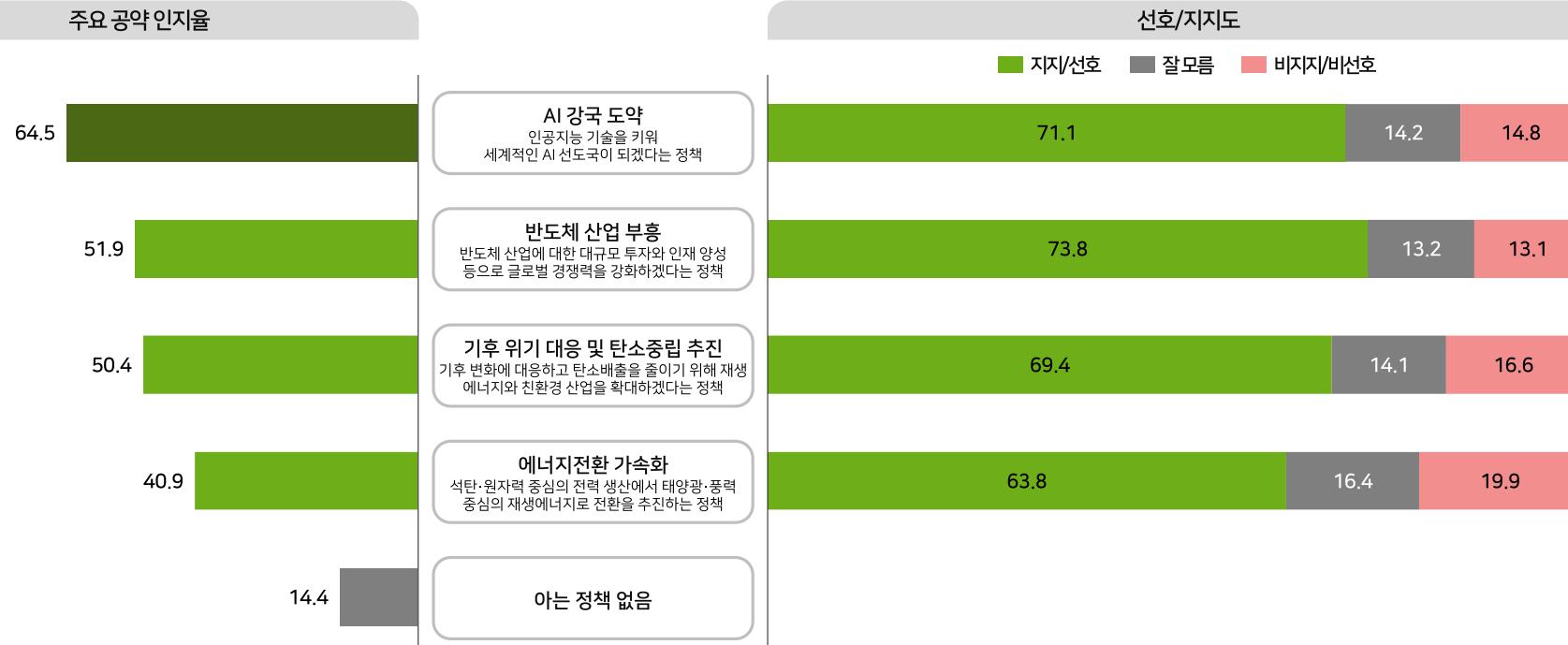
주) 지역*: 일반샘플+관심 지역부스터 샘플 사례수 함께 제시 42page

정부 주요 공약 인지도 및 수용도

- 제시한 정부의 주요 공약 중 AI 강국 도약 인지율이 64.5%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공약 선호/지지도도 70% 상회
- 반면, '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40.9%로 인지율이 가장 낮았으며, 공약 선호/지지도도 63.8%로 가장 낮음

② 주요 공약 인지 및 지지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Top2%]



정부 주요 공약 인지도 및 수용도 by Target

- 주요 공약에 대해,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인 집단은 인지도, 지지도 모두 높음
- 환경 관심도가 높은 경우,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추진(76.6%), 에너지 전환 가속화(71.2%)' 공약에 지지율이 높음

② 주요 공약 인지 및 지지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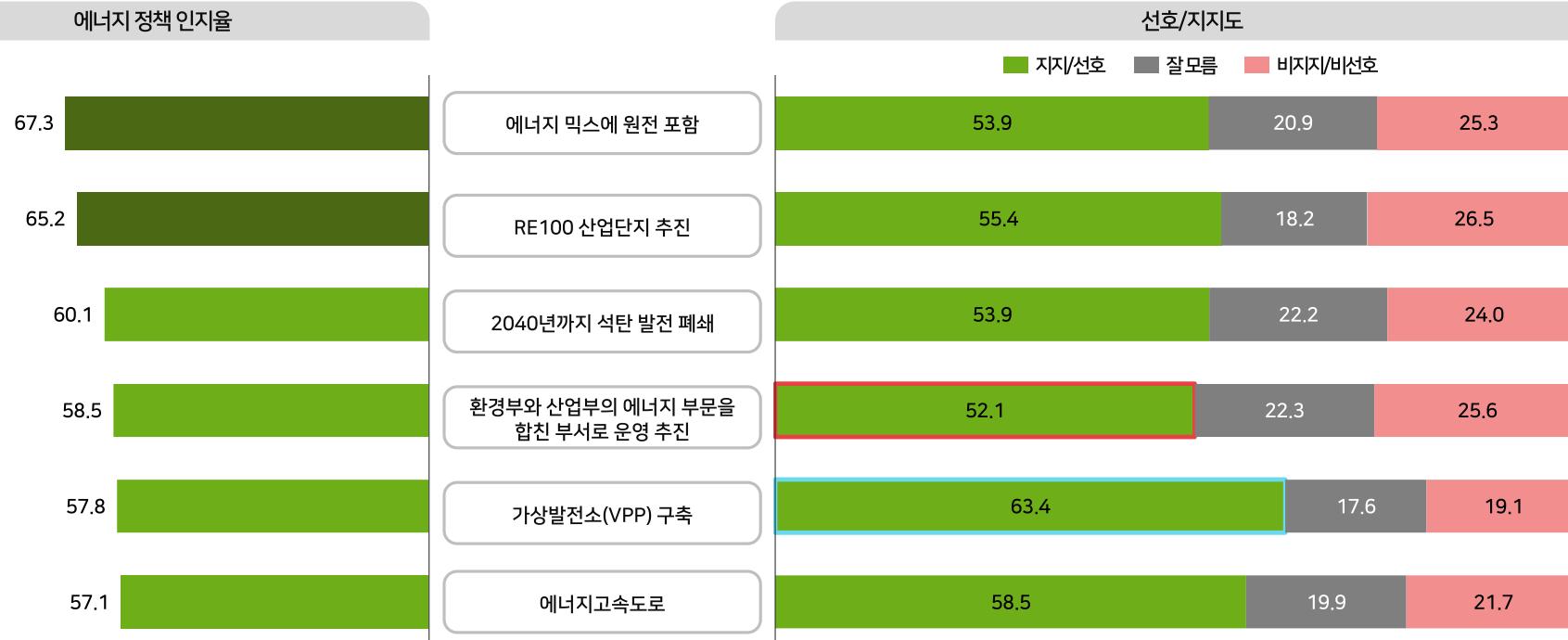
	랜덤	지역(랜덤+부스터)*												연령		환경 관심도			정치성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2039세	4069세	관심 많은편	보통	관심 적은편	보수	중도	진보	
(Base)	(2,000)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300)	(720)	(1,280)	(1,092)	(717)	(191)	(586)	(711)	(703)	
AI 강국 도약 인공지능 기술을 키워 세계적인 AI 선도국이 되겠다는 정책	인지	64.5	63.8	60.1	60.3	67.2	70.5	61.7	65.6	68.7	66.0	65.3	71.0	56.7	68.8	67.8	61.9	55.0	59.4	54.9	78.4
	지지	71.1	69.6	72.5	65.6	73.6	71.6	69.1	72.2	69.3	71.0	69.7	75.0	61.3	76.6	76.3	67.2	56.0	62.8	61.2	88.1
반도체 산업 부흥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재 양성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인지	51.9	50.3	51.1	44.3	54.6	46.3	61.7	53.8	51.0	48.3	49.0	52.3	45.0	55.7	55.5	50.3	36.6	48.1	44.7	62.2
	지지	73.8	72.2	80.3	69.5	74.1	73.7	66.7	74.9	72.3	73.0	74.3	77.0	66.0	78.2	78.6	69.9	61.3	66.6	64.0	89.8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인지	50.4	51.2	43.8	49.6	51.7	54.7	54.3	49.9	55.0	51.3	53.0	57.0	46.9	52.3	58.3	42.4	35.1	43.7	41.5	65.0
	지지	69.4	68.8	68.5	59.5	75.3	69.5	65.4	70.9	71.0	68.3	71.0	75.3	61.1	74.1	76.6	64.0	48.2	53.1	61.9	90.6
에너지전환 가속화 석탄·원자력 중심의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	인지	40.9	40.1	41.6	37.4	42.0	48.4	50.6	39.8	42.7	46.3	43.3	46.0	35.6	43.9	45.7	35.8	32.5	37.4	32.8	52.1
	지지	63.8	63.6	64.0	53.4	70.1	71.6	63.0	63.3	68.0	59.7	65.3	72.3	57.1	67.5	71.2	57.7	44.0	45.4	55.4	87.5
이 중에 아는 정책 없음		14.4	15.2	18.0	19.1	10.9	12.6	8.6	13.7	11.7	15.0	12.0	9.0	16.8	13.0	10.7	17.2	24.6	16.9	21.1	5.4

에너지 정책 인지도 및 수용도

- 에너지 정책 중 '에너지 믹스에 원전 포함', 'RE100 산업단지 추진'은 제시 정책 중 인지도가 65% 이상으로 높으나, 정책 선호/지지도는 절반 수준
-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친 부서로 운영' 추진 정책은 선호/지지도가 52.1%로 가장 낮은 정책임
- 가상발전소 구축은 인지도는 57.8%로 낮지만, 선호/지지도는 제시 정책 중 가장 높은 63.4%

② 에너지 정책 인지도 및 지지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Top2%]



에너지 정책 인지도 및 수용도 by Target

- 광주, 대전 지역 응답자 및 환경 관심도 , 진보 성향 집단에서는 정책 인지도 및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

② 주요 공약 인지 및 지지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랜덤	지역(랜덤+부스터)*										연령		환경 관심도		정치성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 울산*	충남*	호남*	2039세	4069세	관심 많은편	보통	관심 적은편	보수	중도	진보	
(Base)	(2,000)	(539)	(178)	(131)	(174)	(95)	(81)	(781)	(300)	(300)	(300)	(300)	(720)	(1,280)	(1,092)	(717)	(191)	(586)	(711)	(703)	
원전도 에너지 믹스에서 필요하면 유지한다는 정책	인지	67.3	66.6	69.7	72.5	64.9	70.5	76.5	65.8	67.3	66.3	72.3	71.3	59.9	71.5	72.4	64.6	48.2	68.9	59.2	74.1
	지지/선호	53.9	52.7	56.2	49.6	59.8	42.1	37.0	56.5	47.0	53.3	53.7	45.0	48.6	56.8	56.8	50.1	51.3	60.8	42.5	59.6
필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 추진	인지	65.2	64.4	61.2	61.1	68.4	77.9	77.8	64.5	63.7	67.7	69.3	73.0	56.9	69.8	70.9	60.1	51.8	63.5	58.4	73.5
	지지/선호	55.4	56.4	50.6	40.5	59.8	56.8	54.3	56.7	60.7	57.3	58.0	58.0	43.9	61.9	63.3	49.0	34.6	41.1	45.1	77.7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인지	60.1	59.4	60.7	57.3	67.2	61.1	69.1	58.1	65.7	63.7	72.3	63.7	57.2	61.6	64.7	57.2	44.0	58.7	56.3	65.0
	지지/선호	53.9	50.1	53.9	42.7	64.4	65.3	49.4	55.2	55.0	53.3	55.0	59.3	46.9	57.8	60.2	48.0	40.3	44.0	44.7	71.4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친 부서인, '기후환경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부' 추진	인지	58.5	59.9	53.9	61.8	56.3	61.1	71.6	56.9	62.7	56.3	59.7	61.0	54.2	60.9	64.2	55.0	38.7	55.8	54.9	64.3
	지지/선호	52.1	51.0	51.1	44.3	55.2	57.9	46.9	53.6	58.7	51.7	57.0	58.3	44.6	56.3	59.2	46.0	34.6	38.6	44.0	71.6
풍력, 태양광 등 중소규모 생산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PP) 구축	인지	57.8	57.0	56.7	62.6	55.7	64.2	65.4	56.7	60.7	63.7	61.7	61.7	47.2	63.7	63.3	53.7	41.4	56.1	55.3	61.6
	지지/선호	63.4	64.0	64.6	51.9	67.8	60.0	59.3	64.0	63.7	64.3	61.0	62.7	54.2	68.5	68.8	59.0	48.7	53.4	55.1	79.9
재생에너지 발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 (서남해, 제주도 등)과 전력 수요지 등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구축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인지	57.1	58.6	55.6	56.5	56.3	68.4	69.1	54.5	60.3	62.0	65.0	64.7	49.7	61.2	63.6	51.6	40.3	57.3	51.9	62.0
	지지/선호	58.5	57.3	56.7	51.9	63.2	60.0	56.8	59.5	60.7	58.3	59.0	60.0	50.6	63.0	64.0	54.8	40.8	48.5	47.8	77.7

정부 에너지정책 비선호 이유: 에너지 믹스에 원전 포함

- ‘에너지 믹스에 원전 포함’한다는 정책 비지지/비선호자는 4명 중 1명 꼴
- 핵폐기물 처리, 안전사고의 위험**이 해당 정책을 선호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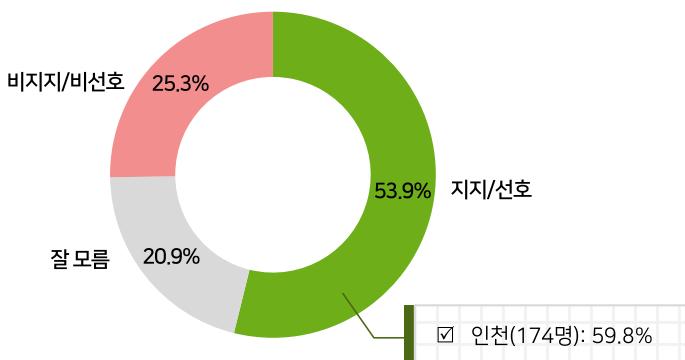
②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복수응답, 탈원전 정책 탈피] 정책 비선호자 505명, 단위: %]

원전도 에너지 믹스에서 필요하면 유지한다는 정책
(기준 민주당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탈피)

정책 지지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랜덤	지역(랜덤+부스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울산*	충남*	호남*
(Base)	(505)	(136)	(49)	(32)	(38)	(30)	(31)	(183)	(83)	(88)	(79)	(100)
핵폐기물 처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55.8	58.1	53.1	53.1	63.2	56.7	45.2	56.3	55.4	58.0	51.9	62.0
원전은 안전사고(지진,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55.0	53.7	53.1	46.9	68.4	53.3	64.5	54.6	62.7	53.4	48.1	52.0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42.0	43.4	49.0	40.6	42.1	33.3	41.9	41.0	43.4	47.7	43.0	43.0
원전 중심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자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33.7	33.1	26.5	43.8	31.6	26.7	38.7	35.0	31.3	42.0	32.9	24.0
민주당의 기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23.8	21.3	18.4	25.0	31.6	33.3	19.4	23.5	26.5	21.6	25.3	27.0

	랜덤	연령		환경 관심도			정치성향		
		2039세	4069세	관심 많으면	보통	관심 적은편	보수	중도	진보
(Base)	(505)	(172)	(333)	(279)	(184)	(42)	(139)	(204)	(162)
핵폐기물 처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55.8	52.3	57.7	59.1	53.8	42.9	56.1	50.0	63.0
원전은 안전사고(지진,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55.0	46.5	59.5	60.9	48.4	45.2	43.9	51.0	69.8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42.0	39.0	43.5	47.7	37.0	26.2	33.8	39.7	51.9
원전 중심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자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33.7	36.6	32.1	33.3	34.8	31.0	31.7	31.9	37.7
민주당의 기존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23.8	32.0	19.5	23.7	26.1	14.3	23.0	26.5	21.0

정부 에너지정책 비선호 이유: RE100 산업단지 추진

- ‘RE100 산업단지 추진’ 정책 비선호/비지지도는 26.5%로 제시 정책 중 가장 높음
- 비선호/비지지 이유로 ‘비용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응답이 62.2%로 가장 많이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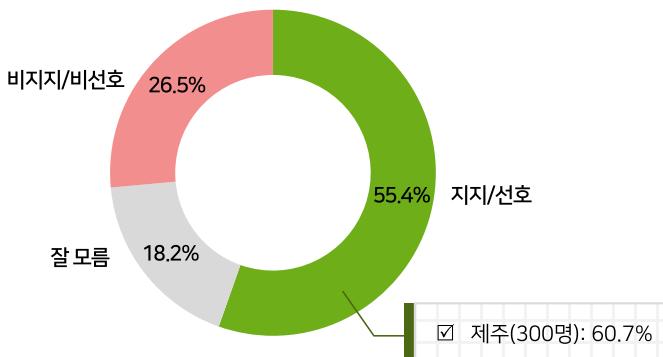
②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복수응답, 'RE 100 산업단지 추진' 정책 비선호자 529명, 단위: %]

필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산단)’ 추진

정책 지지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랜덤	지역(랜덤+부스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울산*	충남*	호남*
(Base)	(505)	(136)	(49)	(32)	(38)	(30)	(31)	(183)	(83)	(88)	(79)	(100)
RE100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서	62.2	63.0	64.2	65.2	57.8	42.3	68.0	62.2	55.0	59.0	56.0	44.0
재생에너지는 날씨나 환경에 따라 전기 생산이 불안정해서 믿고 맡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51.0	50.4	41.5	45.7	53.3	53.8	48.0	53.6	51.7	48.7	53.3	46.4
재생에너지만으로 전기를 100% 공급하는 건 아직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51.8	56.3	45.3	45.7	44.4	50.0	52.0	53.6	45.0	51.3	42.7	41.7
재생에너지 전기 요금이 비싸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46.7	46.7	37.7	39.1	51.1	50.0	52.0	49.0	40.0	47.4	50.7	42.9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생기면 환경 혼란이나 경관 문제가 생길까 걱정돼서	33.6	38.5	22.6	32.6	33.3	30.8	40.0	34.2	40.0	29.5	30.7	34.5

	랜덤	연령		환경 관심도			정치성향		
		2039세	4069세	관심 많은편	보통	관심 적은편	보수	중도	진보
(Base)	(505)	(172)	(333)	(279)	(184)	(42)	(139)	(204)	(162)
RE100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서	62.2	61.3	62.9	62.1	60.8	66.3	66.3	58.8	57.7
재생에너지는 날씨나 환경에 따라 전기 생산이 불안정해서 믿고 맡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51.0	51.8	50.5	55.0	47.4	48.8	56.7	48.2	39.7
재생에너지만으로 전기를 100% 공급하는 건 아직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51.8	47.7	54.7	52.5	51.7	50.0	54.4	48.7	51.3
재생에너지 전기 요금이 비싸 결국 제품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46.7	49.5	44.6	46.7	45.9	48.8	50.8	46.7	33.3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생기면 환경 혼란이나 경관 문제가 생길까 걱정돼서	33.6	28.8	37.1	35.4	34.0	27.5	37.3	33.7	21.8

정부 에너지정책 비선호 이유: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정책 비선호/비지지도는 24.0%
- 비선호/비지지 이유로 '재생에너지와 대체 전원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폐쇄는 전기요금 인상과 정전위험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가 주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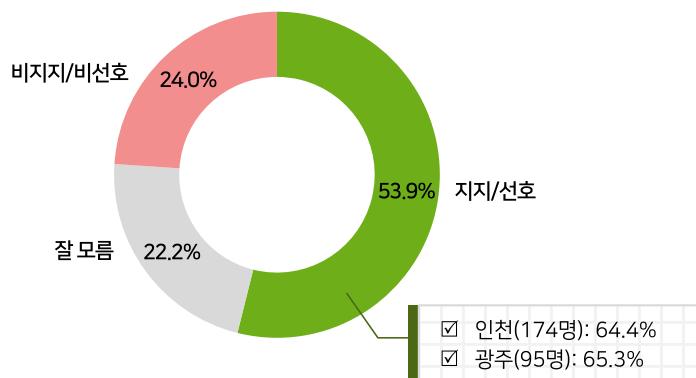
②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Base: 복수응답, '석탄 발전 정책' 정책 비선호자 479명, 단위: %]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정책

정책 지지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랜덤	지역(랜덤+부스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울산*	충남*	호남*
(Base)	(479)	(141)	(47)	(37)	(35)	(18)	(20)	(176)	(60)	(72)	(72)	(67)
재생에너지와 대체 전원(전기)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53.7	58.2	46.8	62.2	54.3	61.1	35.0	49.4	53.3	43.1	52.8	52.2
갑작스러운 폐쇄는 전기요금 인상과 정전 위험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50.9	53.2	40.4	48.6	45.7	38.9	30.0	56.8	46.7	55.6	52.8	46.3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자주 바뀌어 신뢰하기 어려워서	41.3	41.8	31.9	32.4	45.7	38.9	55.0	42.0	41.7	44.4	38.9	31.3
정부가 직업 전환, 보상 등 전환 비용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서	36.5	39.7	27.7	40.5	34.3	22.2	50.0	35.2	23.3	44.4	37.5	19.4
석탄 발전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돼서	28.4	31.2	31.9	13.5	20.0	16.7	40.0	30.1	25.0	34.7	27.8	19.4
2040년은 너무 늦어 기후 위기 대응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25.7	28.4	17.0	27.0	17.1	22.2	25.0	27.8	25.0	15.3	15.3	23.9

	랜덤	연령		환경 관심도			정치성향		
		2039세	4069세	관심 많은편	보통	관심 적은편	보수	중도	진보
(Base)	(479)	(195)	(284)	(225)	(197)	(57)	(207)	(187)	(85)
재생에너지와 대체 전원(전기)이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53.7	51.8	54.9	50.7	53.8	64.9	57.5	49.7	52.9
갑작스러운 폐쇄는 전기요금 인상과 정전 위험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50.9	53.8	48.9	54.7	47.2	49.1	53.6	48.1	50.6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자주 바뀌어 신뢰하기 어려워서	41.3	37.4	44.0	41.3	41.1	42.1	48.8	37.4	31.8
정부가 직업 전환, 보상 등 전환 비용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아서	36.5	41.5	33.1	36.0	37.1	36.8	38.2	38.5	28.2
석탄 발전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돼서	28.4	25.6	30.3	32.9	21.3	35.1	30.9	27.8	23.5
2040년은 너무 늦어 기후 위기 대응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25.7	28.7	23.6	29.8	24.9	12.3	22.7	27.8	28.2

정부 에너지정책 비선호 이유: 기후환경에너지부 추진

-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부분을 합친 부서’ 추진 정책은 비지지/비선호도가 25.6%
- ‘부처 통합이 정치적 상징,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수 있어서’, ‘환경 보호와 산업 진흥은 목표가 달라 갈등과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가 주요 비선호/비지지 이유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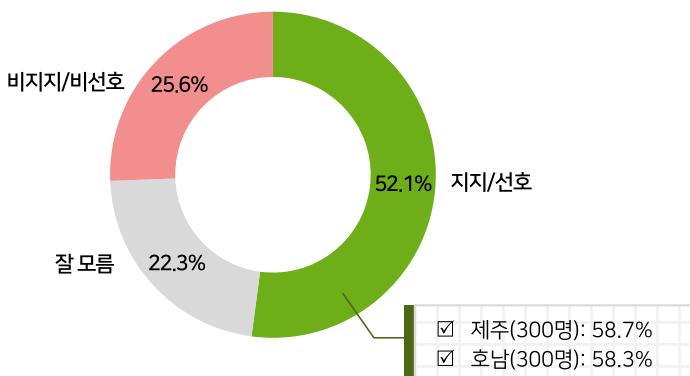
②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Base: 복수응답, '기후 환경 에너지부 추진' 정책 비선호자 512명, 단위: %]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친 부서인,
‘기후환경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부’ 추진

정책 지지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랜덤	지역(랜덤+부스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울산*	충남*	호남*
(Base)	(512)	(134)	(48)	(37)	(47)	(20)	(23)	(199)	(63)	(81)	(68)	(71)
부처 통합이 정치적 상징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61.3	65.7	58.3	70.3	59.6	70.0	69.6	55.3	58.7	55.6	63.2	56.3
환경 보호와 산업 진흥은 목표가 달라, 하나의 부서에서 다루면 갈등과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50.6	50.0	56.3	37.8	31.9	45.0	65.2	55.3	42.9	44.4	45.6	42.3
기후·에너지 정책이 행정 개편보다 실질적인 투자와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43.4	41.8	50.0	35.1	48.9	30.0	43.5	44.7	49.2	46.9	54.4	29.6
공무원 조직 개편은 효율성보다는 혼란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42.8	39.6	41.7	45.9	38.3	10.0	43.5	48.7	36.5	46.9	30.9	39.4

	랜덤	연령		환경 관심도			정치성향		
		2039세	4069세	관심 많으면	보통	관심 적은편	보수	중도	진보
(Base)	(512)	(192)	(320)	(250)	(202)	(60)	(232)	(187)	(93)
부처 통합이 정치적 상징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61.3	62.5	60.6	61.2	60.9	63.3	70.3	55.1	51.6
환경 보호와 산업 진흥은 목표가 달라, 하나의 부서에서 다루면 갈등과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50.6	51.0	50.3	57.2	42.6	50.0	50.0	46.5	60.2
기후·에너지 정책이 행정 개편보다 실질적인 투자와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43.4	45.8	41.9	44.4	43.6	38.3	43.1	44.9	40.9
공무원 조직 개편은 효율성보다는 혼란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42.8	44.3	41.9	44.8	41.6	38.3	49.1	38.5	35.5

정부 에너지정책 비선호 이유: 가상발전소 구축

- 가상발전소(VPP) 구축 정책은 제시 정책 중 비지지/비선호도가 가장 낮은 19.1% 임
- 비선호 이유로는 '설치비/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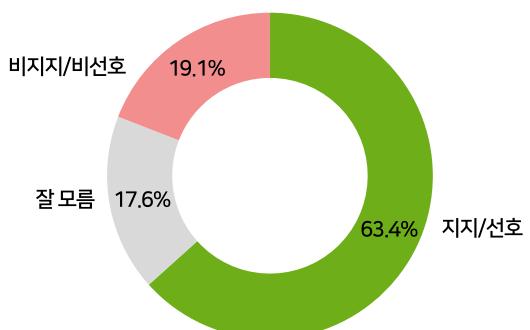
②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Base: 복수응답, 'VPP 구축' 정책 비선호자 382명, 단위: %]

풍력, 태양광 등 중소규모 생산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PP) 구축

정책 지지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랜덤	지역(랜덤+부스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울산*	충남*	호남*
(Base)	(382)	(99)	(39)	(35)	(34)	(18)	(19)	(135)	(59)	(73)	(65)	(65)
설치비 또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아 부담스러워서	49.7	55.6	61.5	45.7	41.2	44.4	36.8	48.9	52.5	52.1	44.6	41.5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 같아 걱정되어서	47.1	47.5	43.6	40.0	44.1	38.9	36.8	49.6	49.2	47.9	40.0	29.2
기존 원자력, 석탄, LNG 발전소로 운영되는 방식이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어서	40.8	46.5	30.8	31.4	38.2	55.6	42.1	40.0	35.6	39.7	38.5	44.6
내 전기 사용 데이터 등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어서	37.4	41.4	15.4	45.7	38.2	27.8	57.9	35.6	45.8	38.4	43.1	32.3
인공지능(AI)이 전력공급을 관리하는 것이 불안해서	30.6	35.4	17.9	25.7	38.2	16.7	31.6	32.6	33.9	27.4	40.0	32.3

	랜덤	연령		환경 관심도			정치성향		
		2039세	4069세	관심 많은편	보통	관심 적은편	보수	중도	진보
(Base)	(382)	(153)	(229)	(180)	(162)	(40)	(169)	(152)	(61)
설치비 또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아 부담스러워서	49.7	45.8	52.4	51.7	46.9	52.5	50.9	46.7	54.1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 같아 걱정되어서	47.1	47.1	47.2	48.3	46.9	42.5	49.7	48.7	36.1
기존 원자력, 석탄, LNG 발전소로 운영되는 방식이 안정적이라고 생각되어서	40.8	46.4	37.1	37.2	43.2	47.5	45.6	36.2	39.3
내 전기 사용 데이터 등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어서	37.4	43.1	33.6	38.3	35.2	42.5	33.7	44.7	29.5
인공지능(AI)이 전력공급을 관리하는 것이 불안해서	30.6	32.7	29.3	33.3	27.2	32.5	32.5	28.9	29.5

정부 에너지정책 비선호 이유: 에너지 고속도로

-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의 비지지/비선호도는 21.7%
- '대규모 건설 사업에 막대한 예산, 효율성 불확실'이 비선호/비지지 응답으로 가장 많이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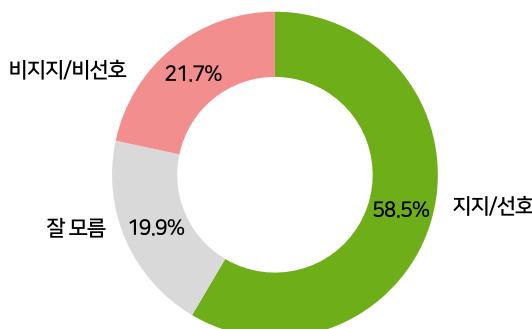
④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Base: 복수응답, 에너지 고속도로'정책 비선호자 433명, 단위: %]

재생에너지 발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서남해, 제주도 등)과 전력 수요지 등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구축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지지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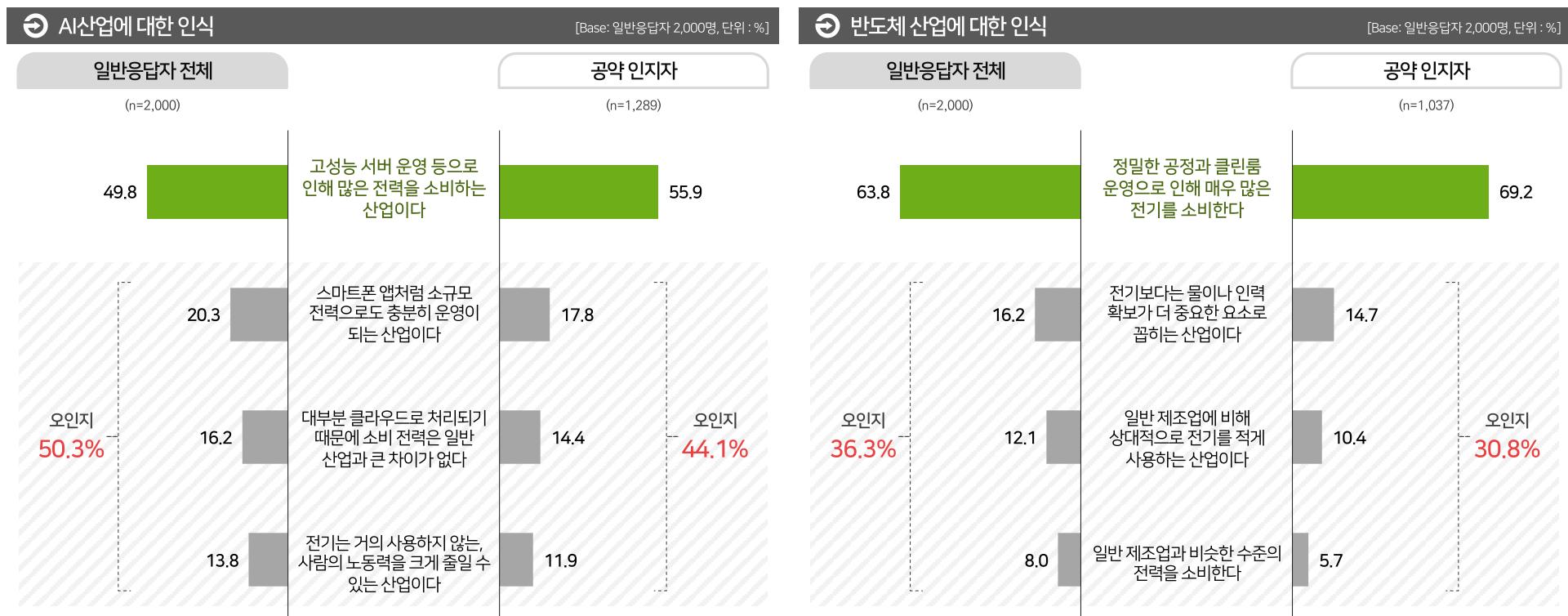
정책 비선호/비지지 이유

	랜덤	지역(랜덤+부스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제주*	경남/울산*	충남*	호남*
(Base)	(433)	(120)	(43)	(32)	(31)	(18)	(21)	(163)	(60)	(76)	(66)	(71)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고, 효율성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서	65.6	70.0	60.5	59.4	61.3	61.1	76.2	64.4	63.3	57.9	62.1	63.4
수도권이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져다 쓰는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서	38.8	33.3	32.6	50.0	32.3	38.9	38.1	42.9	43.3	46.1	47.0	32.4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을 가중 시킨다고 생각해서	38.6	38.3	39.5	40.6	35.5	44.4	52.4	35.6	38.3	35.5	43.9	39.4
재생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자급자족하여 쓰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 방향성과 맞지 않는 방식이라서	37.9	39.2	48.8	34.4	41.9	27.8	42.9	34.4	43.3	39.5	37.9	35.2

	랜덤	연령		환경 관심도			정치성향		
		2039세	4069세	관심 많은편	보통	관심 적은편	보수	중도	진보
(Base)	(433)	(175)	(258)	(217)	(166)	(50)	(180)	(176)	(77)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고, 효율성도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서	65.6	61.1	68.6	67.7	62.0	68.0	71.1	59.7	66.2
수도권이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져다 쓰는 구조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서	38.8	40.0	38.0	37.8	41.6	34.0	35.6	41.5	40.3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을 가중 시킨다고 생각해서	38.6	38.9	38.4	40.1	38.0	34.0	36.7	42.0	35.1
재생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자급자족하여 쓰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 방향성과 맞지 않는 방식이라서	37.9	34.9	39.9	41.0	36.1	30.0	40.6	35.8	36.4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식: 산업 이해도

- 정부의 AI 산업에 대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다'로 정인지하는 비율은 절반 수준
 - 타산업과 유사한 소비/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 등 오인지율도 절반 수준, 공약인자자의 경우 오인지율이 전체 대비 낮기는 하지만 10명 중 4명꼴
-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전기를 소비한다'로 정인지 하는 비율은 63.8%, 전기를 적게 사용, 일반 제조업과 유사 등 오인지율은 36.3%



Q. 'AI산업(예: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 운영 등)'의 특징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Q. '반도체 산업'의 특징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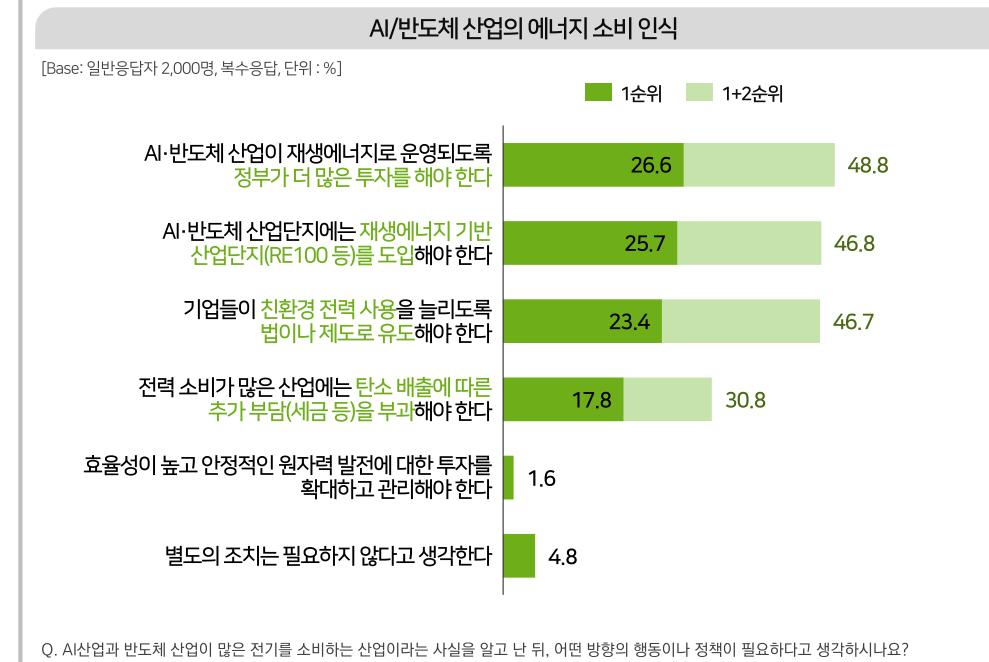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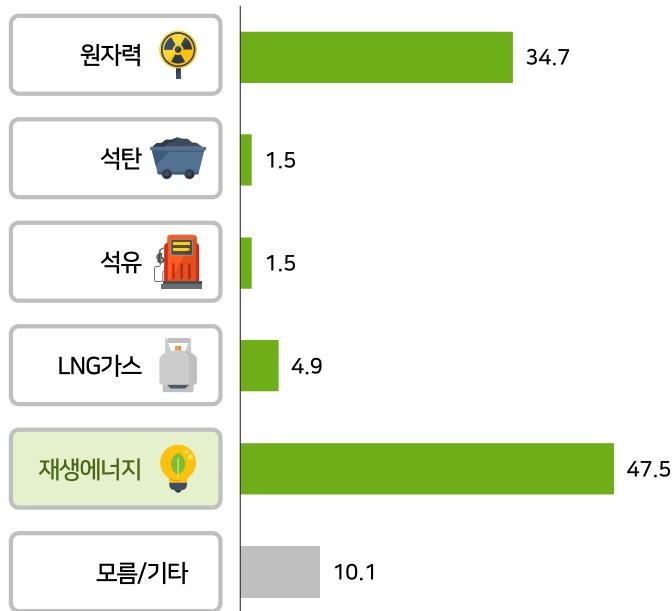
53page

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식: 신규 에너지원

- AI 및 반도체 산업을 위한 신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47.5%) 발전'이 가장 많이 응답됨, 그 다음으로 원자력(34.7%)이 응답됨
- 신규 에너지원에 대해,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를 도입해야 한다', '친환경 전력 사용을 늘리도록 법/제도로 유도한다'가 모두 45% 이상으로 많이 응답됨

② AI 및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신규 전원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To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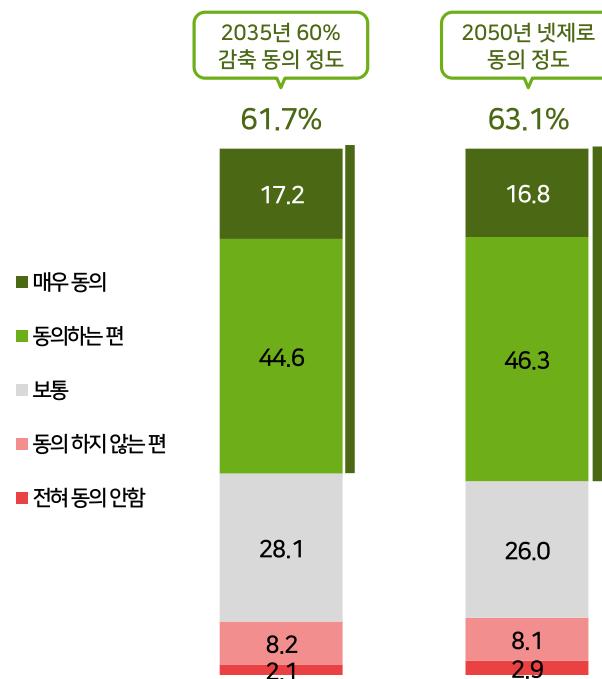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용도

-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 동의율은 61.7%, 2050년 넷제로 동의율 63.1%
-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50-54% 감축 동의율은 63.4% 수준이고, 감축률 평균값은 51.7%로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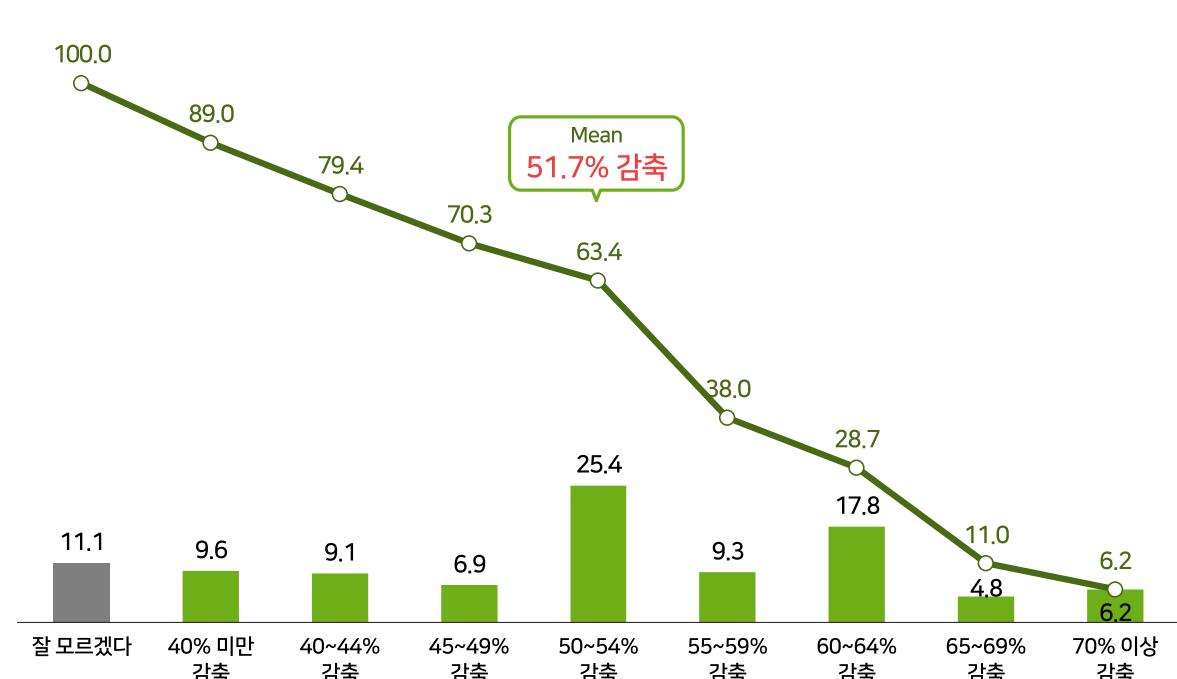
① 온실가스 배출량 동의 정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②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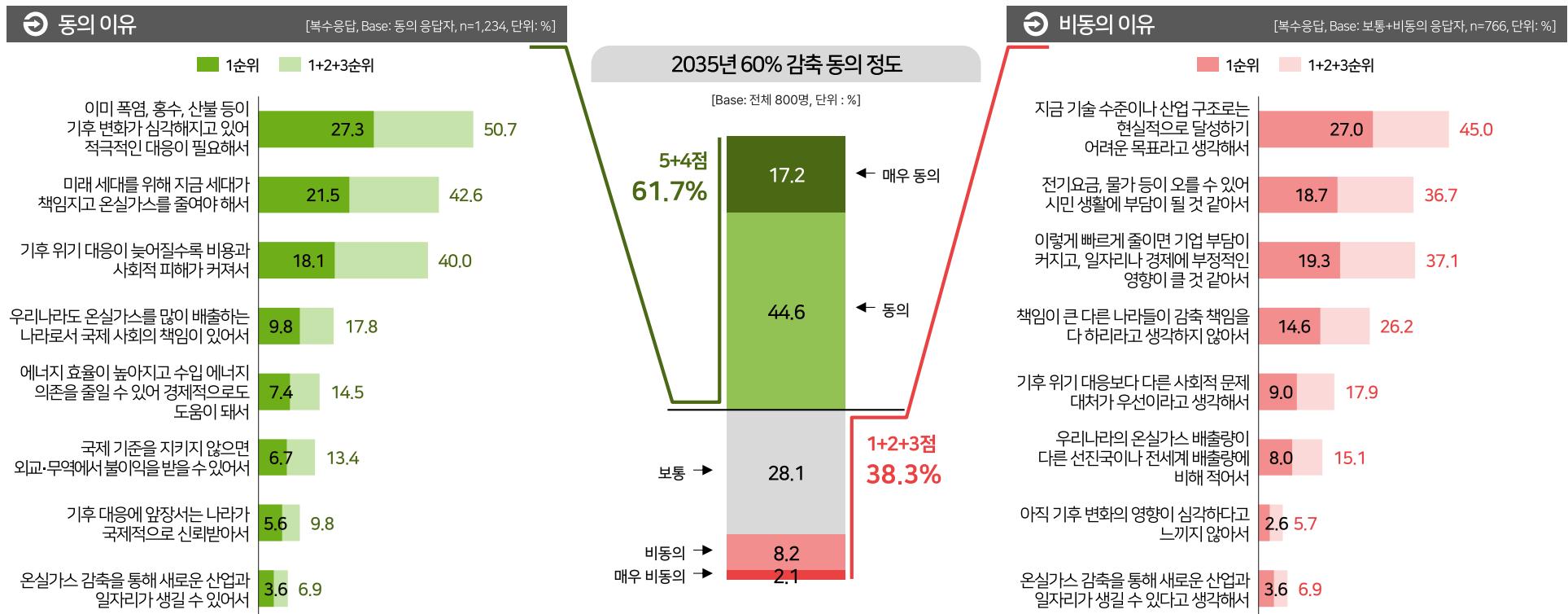


Q.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국제 규약안인 2035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Q.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약속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Q. 우리나라의 2035년 감축목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연도 대비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용도: 권고수준('19년 대비 '35년까지 60%감축) 동의•비동의 이유

- 2035년 온실가스 60% 감축 동의이유로 '이미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서'가 50.7%로 가장 많이 응답됨
- 비동의 이유로는 '현 기술 수준, 산업구조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45.0%)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응답됨
그 외에도 전기료/물가부담, 기업부담/일자리 영향 등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응답이 그 뒤를 이음



Q. 온실가스 배출량 권고수준에 동의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온실가스 배출량 권고수준에 얼마나 동의 하시나요? [5점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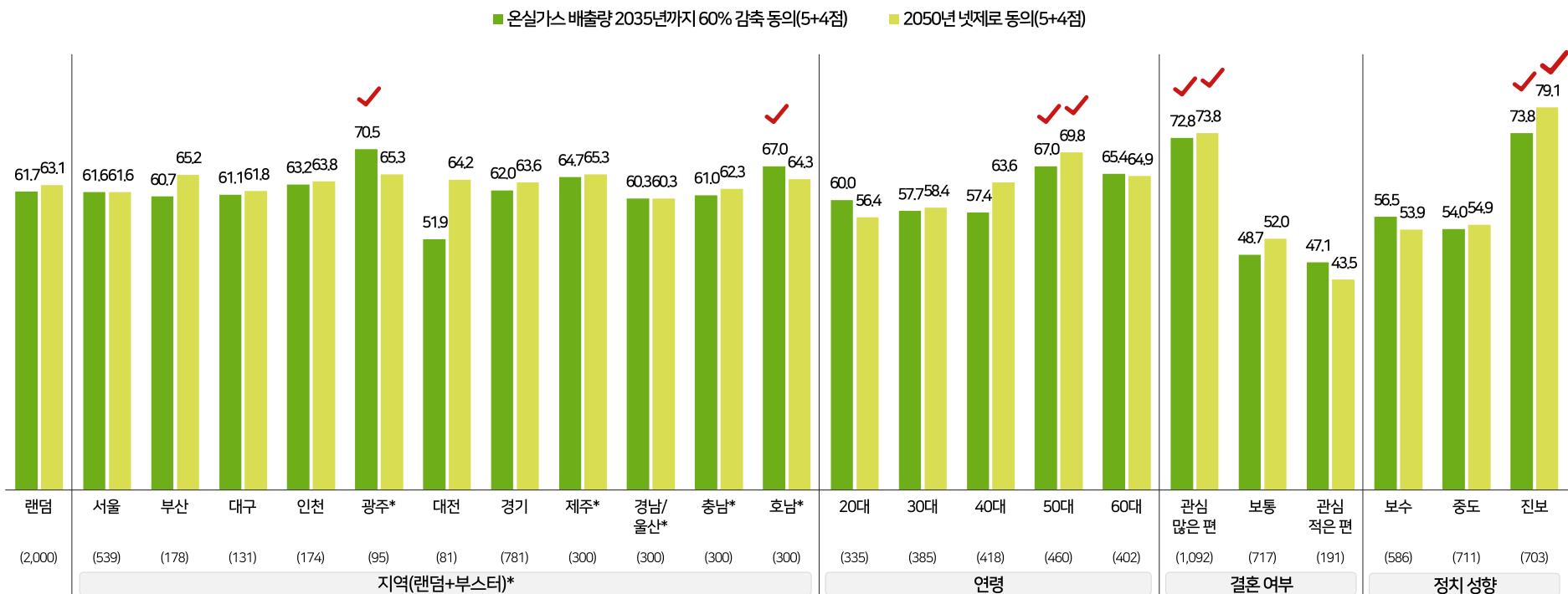
Q. 온실가스 배출량 권고수준에 동의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용도 by Target

- 넷제로 동의율은 50대, 환경 관심도 , 진보 성향 집단에서 동의율이 65% 이상으로 높음

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용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To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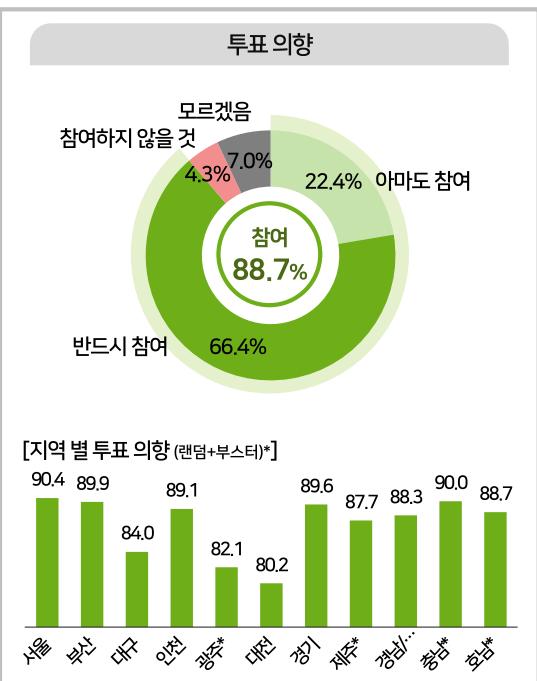


[참고] '26년 지방선거 중요공약

- ‘26년 지방선거 투표 참여율은 88.7%로 높은 가운데, 기후 대응 정책 중요도는 62.0% 수준으로 높음 (중요하지 않음: 7.5%)
- 주요 공약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용 우선 정책’, ‘RE100 산단 조성 및 활용 정책’, ‘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가 상위에 응답됨

① '26년 지방선거에서 기후 대응 정책 중요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매우 중요함 → 12.6
62.0%

중요함 →

49.4

보통 →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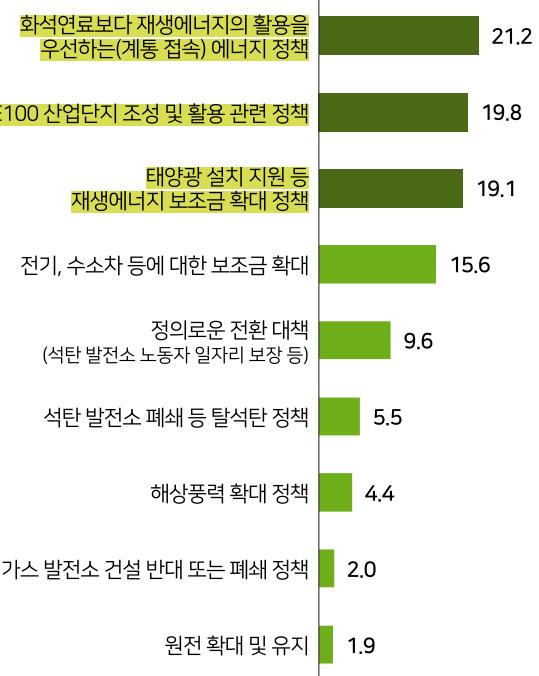
중요하지 않음 → 5.3
7.5%

전혀 중요하지 않음 →

2.2

② 기후 대응관련 중요공약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Q.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후보 결정시, 후보의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공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낼 수 있는 후보자 공약으로서 다음 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8page

Part 3

요약 및 제언

1.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2.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3. 기후테크 및 정부정책에 대한 수용도

요약: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01 기후 위기, 한국 직면 과제로 인식 강화

- 기후·환경 변화(29.8%)는 여전히 다른 사회 문제(사회적 갈등 49.9%, 저출산 47.7%)에 비해 시급성이 낮게 평가되지만, '24년(26.5%) 대비 한국 직면 과제로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인식, 특히 건강(80.7%)과 개인의 일상(79.7%) 차원에서 체감도가 높음
-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일상에서 기후 변화를 체감(전년 대비 10%p ↑), 체감 현상으로는 빈번해진 재난, 불규칙한 기온 변화가 상위에 응답됨

02 기후 변화에 대한 의식은 높아졌지만, 행동은 정체

- 전체 응답자의 57.8%가 기후 변화에 대해 자주 대화(전년 대비 10%p ↑)
- 그러나 대응 행동 의향은 평균 5.7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예: 콘텐츠 시청·공유, 서명운동, 후원·자원봉사, 정책 참여 등)

03 세대·지역 별 기후 변화에 인식 차이 존재

- 연령 - 20대: 낮은 체감도, 40대·60대: 높은 체감도
- 지역 - 광주·제주: 지역 사회 차원의 영향인식이 높은 편

04 기후 변화 책임의식은 기업과 정부에 집중

- 기후 변화 책임 비중은 "기업(39.5%) > 정부(34.6%) > 개인(23.3%)" 순으로 응답, 전년과 동일한 패턴



높아진 의식 만큼 '기후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와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

체감도가 낮은 집단에게는 교육·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 제고활동으로

체감도가 높은 집단에게는 실천행동 및 투표참여로 연결 할 수 있는 정책 설계 필요

기업의 기후 대응활동 투명 공개 및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관련 소통 강화 필요

요약: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01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있으나,
경제성과 안정성에 우려도 큼

- ☒ 다수는 재생에너지를 기후 위기 솔루션·청정 에너지·정부 지원이 필요한 산업으로 인식 그러나 영토 제약·안정적 수급 어려움·기술 구현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절반 이상 존재
 - 긍정 이미지: 자연친화적, 깨끗한,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 부정 이미지: 정부 주도로 강제 추진, 비싸다, 비효율적 에너지
- ☒ 에너지원 전반적 평가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반적으로 다른 에너지원보다 긍정 평가가 높았으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원자력(57.1%)이 재생에너지보다 우위
 -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원자력 선호 비중 '24년 상승 ('24년 26.2% → '25년 30.1%)
 - 재생에너지 응답률은 소폭 감소 ('24년 30.9% → '25년 28.6%)

02

76.7%,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속도 느리다 응답...
에너지 정책 관련 정보 불충분과
정치적 불신도 존재

- ☒ 다수는 재생에너지를 기후 위기 솔루션·청정 에너지·정부 지원이 필요한 산업으로 인식
- ☒ 에너지 전환에 걸림돌 1순위: 주민 및 이해관계자 반대 (50.8%)가 가장 많이 응답됨, 2순위: 정부의 낮은 의지(45.7%)가 응답되었으나, '24년 대비 응답률이 23.7%p 감소
- ☒ 3순위: 전력 시장 구조 문제(45.7%) 지적
- ☒ 재생에너지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43.0%), 에너지 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67.6%)
 - 정보 및 정책 신뢰 인식도 낮음

03

연령 간, 지역 간, 정치 성향 간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 격차 큼

- ☒ 재생에너지 긍정인식 집단: 인천, 여성, 50대, 환경 관심도 , 진보 성향 응답자
- ☒ 재생에너지 부정인식 집단: 20대, 환경 관심도 , 보수 성향 응답자



경제성(비용 절감 사례), 기술 발전 성과, 안정적 전력 공급 가능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및 시범 사례 확대 필요

정당을 초월한 중장기적 정책 합의와 투명한 정보 공개·정책 소통 강화 필요

요약: 기후 테크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도

01

기후 테크 용어 인지도 62.9%, '기후 대응과 경제적 기회'로 인식한 비율 66%

- "탄소중립" 인지도는 97%로 가장 높음. 반면, RE100(63.7%), 기후 테크(62.9%) 등은 낮고,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 내외
- 기후 테크는 '기후 대응을 위한 기술인 동시에 경제적 기회(66.0%)'로 인식되며, 관련 선행·우선 투자 필요 기술은 ESS(약 60%)가 1위, 그 외는 30%대 수준
- 20~30대 및 환경 관심도 낮은 집단은 용어 인지도도 전반적으로 낮고, "산업화·수입화는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후 테크에 회의적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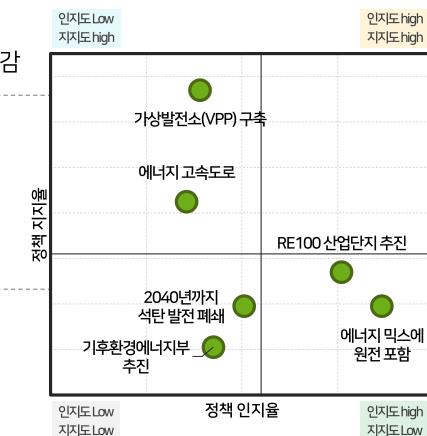
4대 주요 공약 지지도: AI강국 도약 1위(71.1%)... 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4위(63.8%)

- 주요 공약 인지도: AI 강국 도약(64.5%) > 반도체 육성(51.9%) >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50.4%) > 에너지 전환 가속화(40.9%)
- AI 산업은 전력 다소비 산업이라는 정인지는 절반 수준, 반도체 산업은 63.8% 정인지
- 신규 에너지원의 재생에너지 연결 정책
(정부투자 48.8%, RE100 추진 46.8%, 친환경 전력 구매제도 46.7%)에는 상대적으로 공감

03

실질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수용도

- 인지도는 낮지만, 정책 선호도는 높은 가상발전소(VPP) 구축, 에너지 고속로고 정책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이 실익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정책
- 반면, 인지도는 높지만 정책 선호도가 낮은 'RE100 산업 단지'는 비용 대비 효과 우려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는 에너지 안정성에 우려,
기후환경에너지부 추진은 실익 보다 정치적 상징화라는 이유로 비선호



04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용도 60% 이상

- 2050년 넷제로 동의율 63.1% … 50대·환경 관심…진보 성향에서 65% 이상으로 높음
- 2035년 60% 감축 동의율 61.7%
- 동의 이유: "이미 기후 위기가 심각하므로 적극적 대응 필요" 50.7%
- 비동의 이유: "현 기술·산업구조로 달성 불가"(45.0%)가 최다, 경제적 부담 우려도 다수



국민 선호도가 높은 VPP, ESS와 같은 실증사업 확대로 체감도 높이기
RE100 산단 및 석탄발전 폐쇄 등의 정책은 효과성·안정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필수
감축목표에 동의하는 시민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과 재생에너지 연결 정책 강화

Appendix.

1. 관심 지역 이슈 점검
2. 미디어 이용행태

Appendix

추가이슈 점검

1. 관심 지역 이슈 점검

- 1) [경남, 충남] 석탄 발전소 이슈
- 2) [경남]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 3) [제주, 호남] 재생에너지 발전제한에 대한 인식
- 4) [경남, 호남] RE100 산단 조성
- 5) [인천, 제주, 전남] 풍력발전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
- 6) [제주]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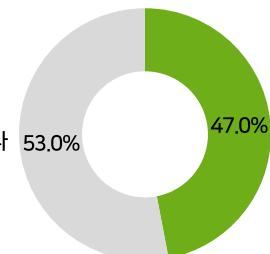
[경남, 충남] 석탄 발전소 이슈

- 경남 지역 대비 충남 지역이 지역 발전에너지의 타지역 소비 인지율이 높고, 석탄 발전소 조기 퇴출 동의율도 높음
-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에는 두 지역 모두 동의율이 65% 내외로 높으나, 석탄산업 종사자 보상/지원 준비 공감도는 20% 미만으로 낮음

④ 지역발전에너지, 타지역 소비 인지여부

[Base: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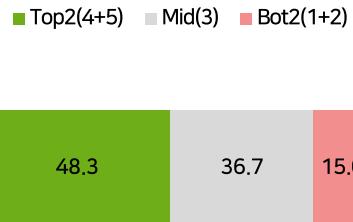
경남
모른다 53.0% 알고 있다 47.0%



④ 석탄 발전소 조기 퇴출 동의여부

[Base: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Top2(4+5) 48.3
Mid(3) 36.7
Bot2(1+2) 15.0



④ 석탄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동의여부

[Base: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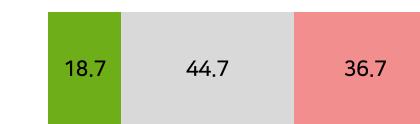
Top2(4+5) 64.0
Mid(3) 26.7
Bot2(1+2)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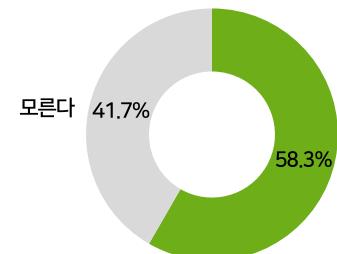
④ 석탄산업 종사자 보상/지원 준비 공감도

[Base: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Top2(4+5) 18.7
Mid(3) 44.7
Bot2(1+2) 36.7



충남
모른다 41.7% 알고 있다 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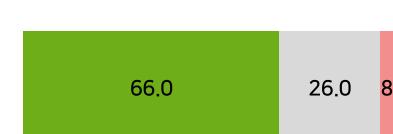
④ Top2(4+5) Mid(3) Bot2(1+2)

Top2(4+5) 54.0
Mid(3) 34.0
Bot2(1+2)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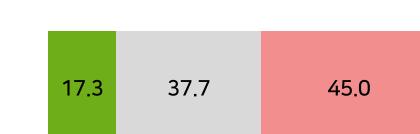
④ Top2(4+5) Mid(3) Bot2(1+2)

Top2(4+5) 66.0
Mid(3) 26.0
Bot2(1+2) 8.0



④ Top2(4+5) Mid(3) Bot2(1+2)

Top2(4+5) 17.3
Mid(3) 37.7
Bot2(1+2) 45.0



[경남, 충남] 석탄 발전소 이슈 by Target

- 석탄 발전소 조기 퇴출 및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관련 동의율은 40-69세에서 높은 편

④ [경남, 충남] 석탄 발전소 이슈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전체 관련 지역	경남	성별		연령		직업			
			남성	여성	2039세	4069세	화이트칼라	블루 칼라	전업 주부	무직/기타
(Base)	(600)	(300)	(155)	(145)	(87)	(213)	(106)	(76)	(52)	(66)
석탄발전 전기 타지역 사용인지	52.7	47.0	57.4	35.9	43.7	48.4	49.1	46.1	34.6	54.5
석탄 발전소 조기 퇴출 동의(5+4점)	51.2	48.3	46.5	50.3	34.5	54.0	52.8	40.8	48.1	50.0
석탄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동의(5+4점)	65.0	64.0	64.5	63.4	49.4	70.0	68.9	55.3	61.5	68.2
석탄산업 종사자 보상/지원 공감(5+4점)	18.0	18.7	21.9	15.2	17.2	19.2	21.7	19.7	11.5	18.2

	전체 관련 지역	충남	성별		연령		직업			
			남성	여성	2039세	4069세	화이트칼라	블루 칼라	전업 주부	무직/기타
(Base)	(600)	(300)	(159)	(141)	(95)	(205)	(126)	(86)	(47)	(41)
석탄발전 전기 타지역 사용인지	52.7	58.3	72.3	42.6	54.7	60.0	67.5	59.3	38.3	51.2
석탄 발전소 조기 퇴출 동의(5+4점)	51.2	54.0	52.2	56.0	44.2	58.5	57.1	54.7	51.1	46.3
석탄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동의(5+4점)	65.0	66.0	59.7	73.0	56.8	70.2	65.1	65.1	74.5	61.0
석탄산업 종사자 보상/지원 공감(5+4점)	18.0	17.3	18.9	15.6	16.8	17.6	15.1	17.4	21.3	19.5

[경남, 충남] 석탄 발전소 이슈: 조기 퇴출 동의여부 및 이유

- 석탄 발전소 조기 퇴출 동의이유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69.7%)'가 두 지역 모두 가장 많이 응답됨
- 비동의 이유로는 '전력 공급 불안', '대체 에너지원 부족'이 두 지역 모두 50% 이상으로 상위에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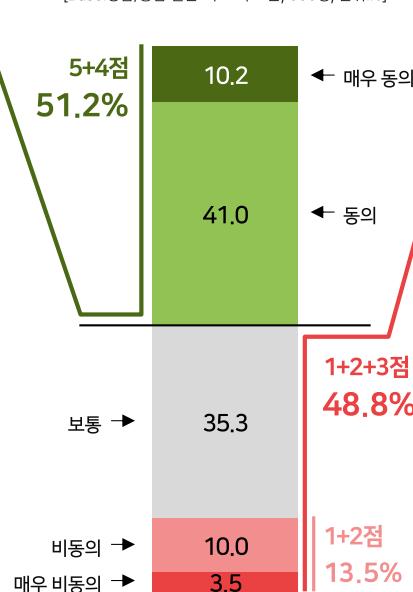
❶ 동의 이유

[복수응답, 조기 퇴출 항목 긍정(5+4점) 응답자, n=307, 단위: %]

	Total	경남/ 울산	충남
(Base)	(307)	(145)	(162)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69.7	68.3	71.0
건강에 해로운 대기 오염 때문에	56.7	55.2	58.0
재생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서	54.4	54.5	54.3
온실가스 감축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49.2	49.0	49.4
석탄 발전이 경제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32.6	31.0	34.0

석탄 발전소 조기 퇴출 동의여부

[Base: 경남/충남 일반+부스터 표본, 600명, 단위: %]



❷ 비동의 이유

[복수응답, 조기 퇴출 항목 부정(1+2+3점) 응답자, n=293, 단위: %]

	Total	경남/ 울산	충남
(Base)	(293)	(155)	(138)
전력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어서	57.7	59.4	55.8
대체할 에너지원이 부족해서	52.6	54.8	50.0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39.2	41.9	36.2
일자리 감소가 걱정되어서	32.8	34.8	30.4
석탄 발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8.9	8.4	9.4

Q. 국내 석탄 발전소 조기 퇴출에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Q. 기후환경단체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선 그보다 빠른 2035년에 퇴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후환경단체의 견해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Q. 국내 석탄 발전소 조기 퇴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7page

[경남, 충남] 석탄 발전소 이슈: 재생에너지 발전 및 유관 산업으로 전환 동의여부 및 이유

-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에 동의하는 이유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이 가장 많이 응답됨
- 비동의 이유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전기 공급에 의구심', '전환 비용에 부담'이 상위에 응답됨

❶ 동의 이유

	Total	경남/ 울산	충남
(Base)	(390)	(192)	(198)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80.5	76.0	84.8
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장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해서	58.5	61.5	55.6
지역 주민 건강에 더 도움이 되어서	40.0	35.4	44.4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27.4	28.1	26.8
지역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4.6	26.6	22.7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 동의여부

[Base: 경남/충남 일반+부스터 표본, 600명, 단위:%]



❷ 비동의 이유

[복수응답, Base 재생 에너지 전환 속성 항목 부정(1+2+3점) 응답자, n=210, 단위: %]

	Total	경남/ 울산	충남
(Base)	(210)	(108)	(102)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47.6	47.2	48.0
전환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45.7	41.7	50.0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 되면 지역 경관을 해칠 것이므로	27.6	28.7	26.5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걱정돼서	21.0	23.1	18.6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운영이 향후 지역 개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	20.5	18.5	22.5
재생에너지가 아닌 LNG 발전으로 전환이 보다 적합하므로	19.0	14.8	23.5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17.1	18.5	15.7
주변 지역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10.5	12.0	8.8

Q.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견해에 동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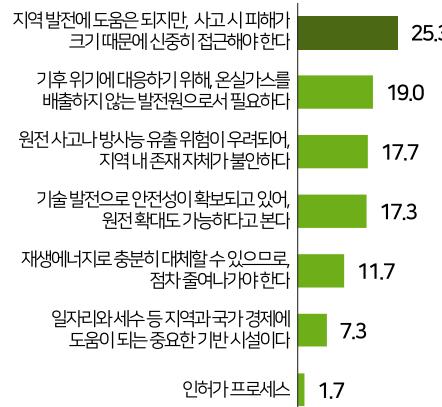
Q. 귀하의 지역에 위치한 석탄 발전소 산업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유관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견해에는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Q.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8page

[경남]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 경남지역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은 '신중론'이 25.3%로 가장 우세
-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동의율은 53.3%, '기후 위기 대응'이 가장 많이 응답된 동의 이유이며 그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응답됨

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

[Base: 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



Q. E3. 귀하의 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와 가장 가까운 항목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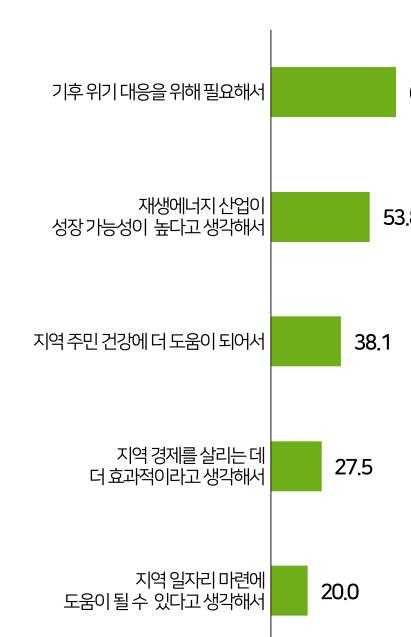
② 원자력 산업 종사자 보상/지원 준비 공감도

■ Top2(4+5) ■ Mid(3) ■ Bot2(1+2)



③ 동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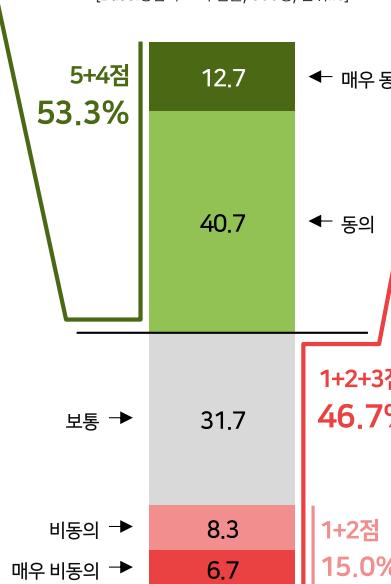
[복수응답, 동의(5+4점) 응답자, n=160, 단위: %]



Q.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견해에 동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자력, 재생에너지 전환 동의여부

[Base: 경남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



Q. 귀하의 지역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유관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견해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십니까?

④ 비동의 이유

[복수응답, 비동의(1+2+3점) 응답자, n=14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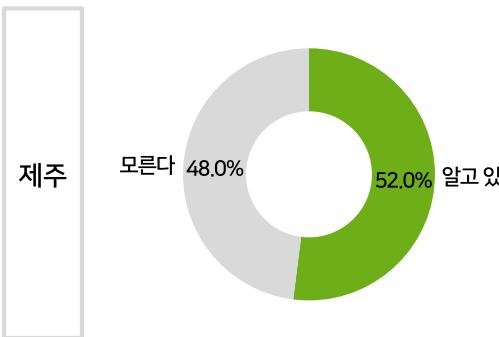
Q.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 호남] 재생에너지 발전제한에 대한 인식

- 제주지역은 기존 사업자의 재생에너지 발전 제한 인지율이 52.0%로 높으나, 호남지역은 38.3%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신규사업자의 발전무제한 중단 인지율은 두 지역 모두 30% 내외로 낮은 수준
- 재생에너지 우선사용, ESS설비 정부지원에는 동의율이 70% 이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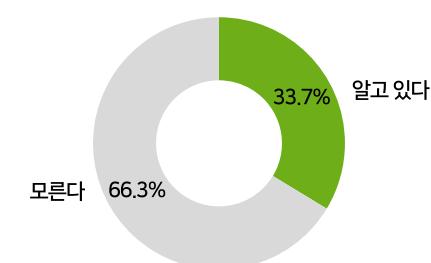
▣ 기존사업자 재생에너지 발전제한 인지여부

[Base: 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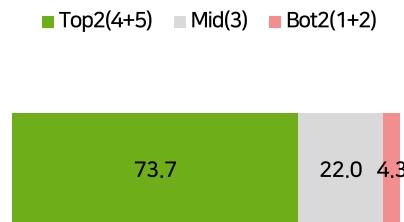
▣ 신규사업자 '발전무제한 중단' 인지여부

[Base: 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 재생에너지 우선사용 동의 정도

[Base: 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 ESS 설비 정부지원 동의여부

[Base: 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제주

호남

[경남, 호남] RE100 산단조성

- 경남지역에 RE100 산단 조성 동의율은 55.3%, 호남지역은 57.7%로 두 지역 모두 유사
-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보탬 정도에는 동의율이 두 지역 모두 60% 이상으로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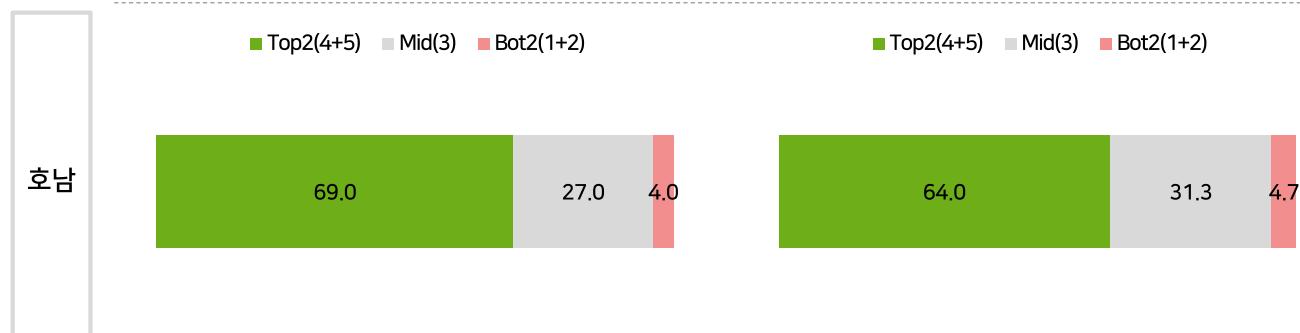
④ RE100 산단조성 동의여부

[Base: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④ RE100 산단,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보탬정도

[Base:일반+관심 지역 부스터 샘플, 300명, 단위:%]



[인천, 제주, 전남] 풍력발전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

- 풍력발전소 확대 동의율은 관심 지역에서 모두 70% 이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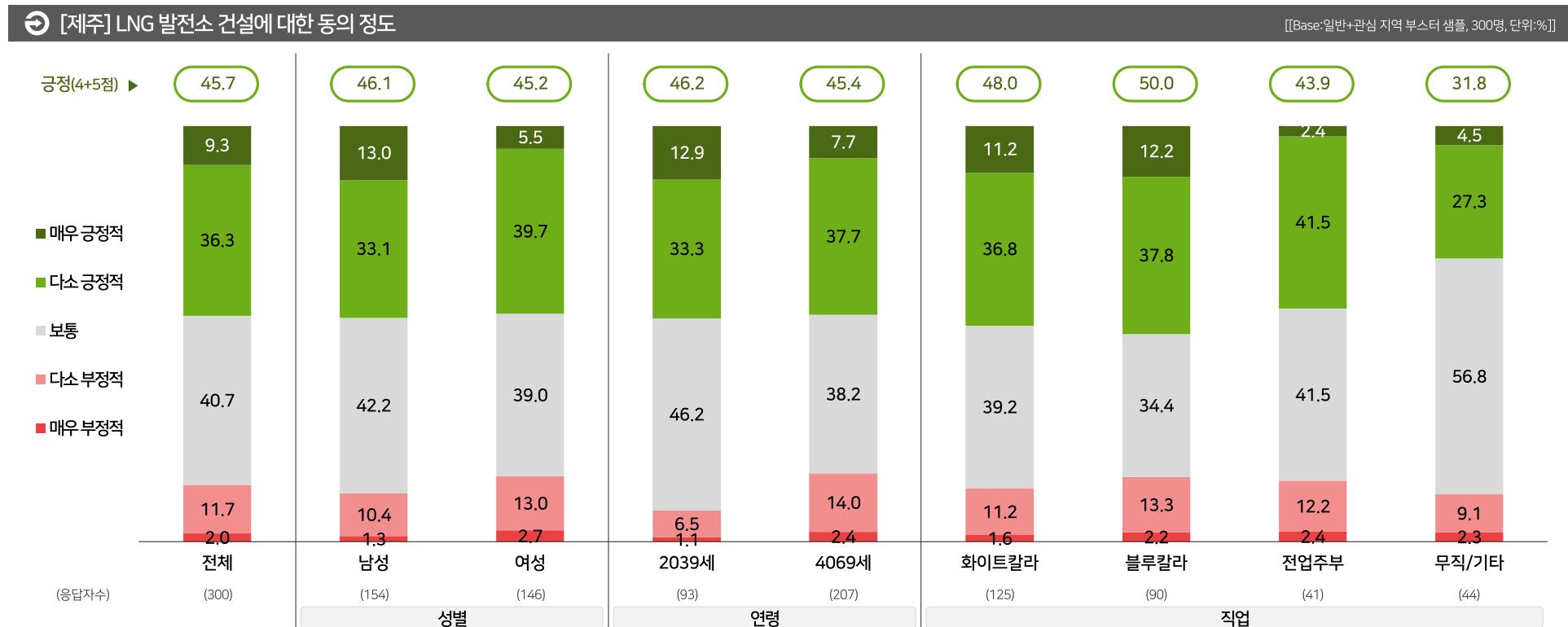
④ [인천, 제주, 전남] 풍력발전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

[Base: 인천, 제주, 전남 일반+부스터 응답자 569명, 5점척도단위: %]



[제주]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동의 정도

- 제주 LNG 발전소 건설 동의율은 45.7%로 낮은 편



Append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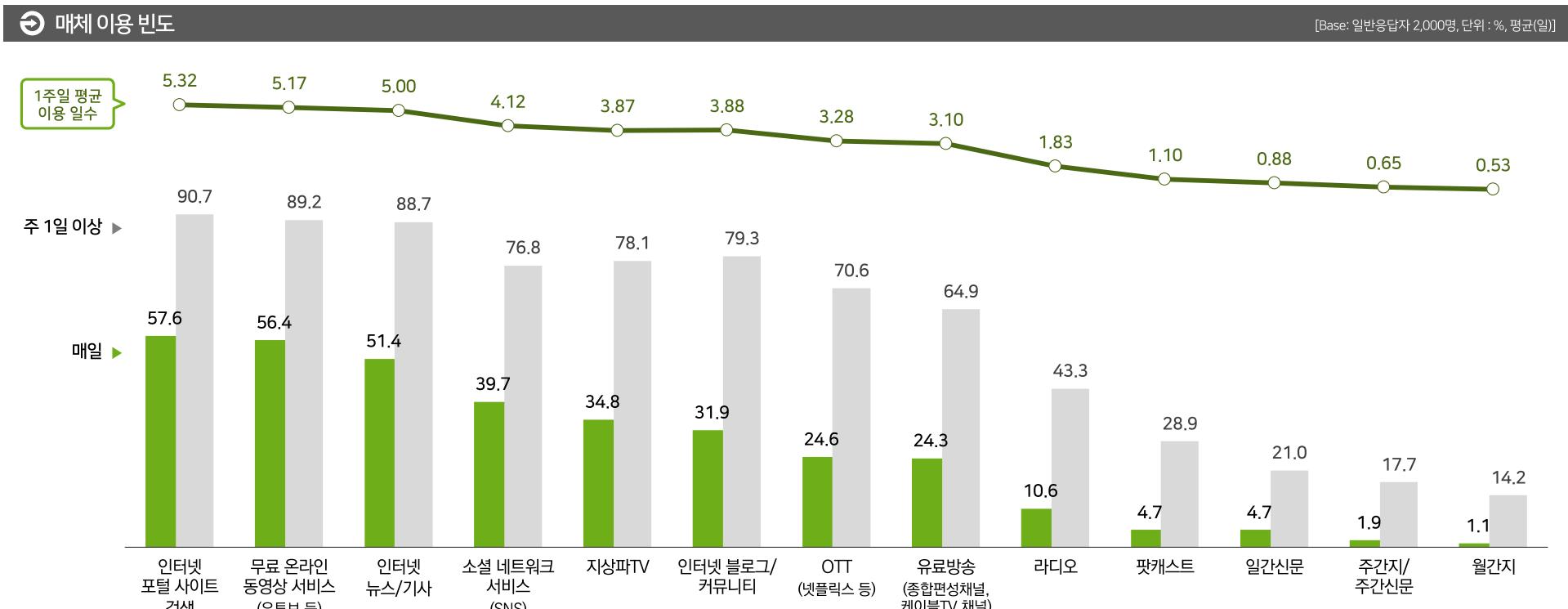
추가이슈 점검

2. 미디어 이용행태

- 1) 매체 이용
- 2) 분야별 정보 참고 매체
- 3) 오피니언 형성 영향 요인
- 4) 관심 분야

매체 이용 빈도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유튜브 등의 무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 뉴스/기사는 주 평균 5일 이상,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매체임
 - 매일 타겟 국민의 50% 이상이 이용하고 있음
- 지상파TV/유료방송, 라디오 등 레거시 미디어는 디지털 미디어보다 이용 빈도가 다소 낮음



Q. 각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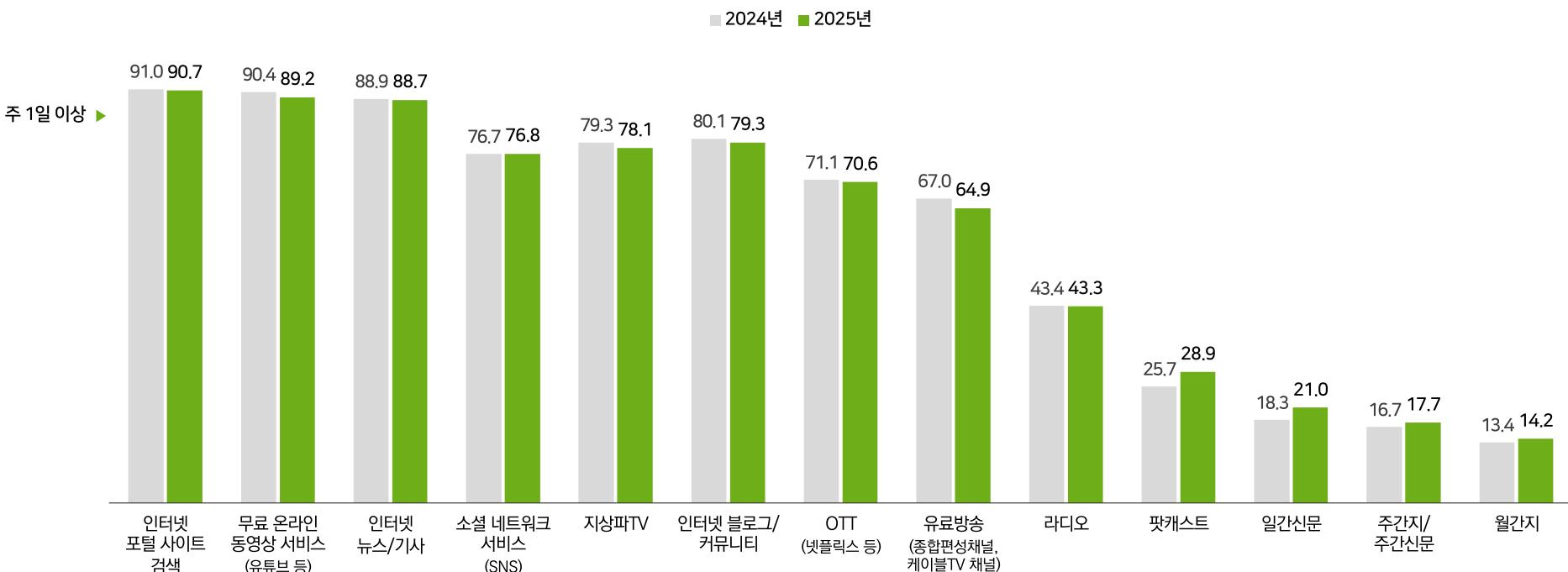
75page

매체 이용 빈도: '24년 vs. '25년

- 2025년과 2024년 매체 이용률 유사

④ 매체 이용 빈도: '24년 vs. '25년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평균(일)]



Q. 각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시나요?

[참고] 2024년은 20~59세만 진행

76page

분야별 정보 참고 매체

- 정치/경제/사회 모두 '인터넷 뉴스/기사' 및 '지상파TV',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이 주요 정보원으로 상위에 응답됨
- 환경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참고매체 응답률이 낮은 가운데, 주요 정보원은 인터넷 뉴스/기사, 지상파TV,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이 상위에 응답됨
- 문화 예술은 라디오 서비스는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사이트로 다른 분야와 순위에 차이가 있음

◐ 분야별 정보 참고 매체						[복수응답,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예술	제품/서비스	
1 지상파TV	59.5	1 인터넷 뉴스/기사	54.0	1 인터넷 뉴스/기사	58.4	1 인터넷 뉴스/기사 32.7
2 인터넷 뉴스/기사	56.3	2 지상파TV	52.5	2 지상파TV	57.9	2 지상파TV 30.9
3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41.6	3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46.9	3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49.7	3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29.7
4 일간신문	37.0	4 일간신문	41.1	4 일간신문	41.7	4 무료온라인동영상서비스 24.6
5 무료온라인동영상서비스	34.0	5 무료온라인동영상서비스	34.5	5 무료온라인동영상서비스	40.4	5 일간신문 23.3
6 주간지/주간신문	32.5	6 주간지/주간신문	33.7	6 소셜네트워크서비스	39.1	6 소셜네트워크서비스 21.7
7 유료방송	30.8	7 월간지	33.0	7 주간지/주간신문	35.5	7 주간지/주간신문 18.8
8 월간지	29.5	8 유료방송	30.2	8 라디오	33.8	8 월간지 18.0
9 팟캐스트	29.4	9 소셜네트워크서비스	26.5	9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32.5	9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17.1
10 라디오	27.5	10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26.0	10 유료방송	31.0	10 유료방송 16.9
1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25.5	11 라디오	25.5	11 월간지	30.9	11 팟캐스트 14.9
12 인터넷블로그/커뮤니티	21.1	12 팟캐스트	23.6	12 라디오	27.4	12 월간지 14.6
13 OTT	7.5	13 OTT	9.8	13 OTT	16.2	13 주간지/주간신문 27.4
						12 OTT 11.3
						13 라디오 10.9

오피니언 형성 영향 요인

-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이 사회 여러 분야에 의견을 결정, 판단 시 “온라인 뉴스/기사”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❸ 오피니언 형성 영향 요인

[복수응답, Base: 일반응답자 2,000명, 단위 : %]

	Total	2024년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정치 성향			환경 관심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혼	기혼 유자녀	기혼 무자녀	보수	중도	진보	관심 많은 편	보통	관심 적은 편
(Base)	(2,000)	(2,000)	(999)	(1,001)	(335)	(385)	(418)	(460)	(402)	(728)	(1,147)	(125)	(586)	(711)	(703)	(1,092)	(717)	(191)
온라인 뉴스/기사	54.9	54.0	56.1	53.7	47.8	52.7	55.0	61.3	55.5	51.1	57.5	53.6	52.4	49.5	62.4	57.2	54.0	45.0
TV 콘텐츠(프로그램/뉴스 등)	46.9	44.9	45.6	48.2	36.1	39.2	48.3	55.2	52.2	40.9	51.4	40.8	42.5	43.7	53.8	52.0	41.6	37.7
인터넷 동영상(유튜브 등) 콘텐츠	46.8	35.5	49.5	44.0	48.4	43.6	45.5	51.1	44.8	48.5	45.5	48.0	47.3	38.8	54.3	46.5	46.9	47.6
주변 사람(친구나 가족)	34.8	31.1	28.4	41.1	45.4	35.6	29.9	33.9	31.1	38.9	31.4	41.6	32.8	33.2	38.0	36.3	32.6	34.0
TV 광고(지상파, 종편, 케이블)	30.3	29.1	28.8	31.7	22.1	23.1	32.1	36.3	35.1	24.5	35.0	20.0	30.9	30.8	29.2	32.4	29.0	22.5
인터넷 블로그/커뮤니티 게시글	27.9	25.2	29.1	26.6	29.9	29.9	28.9	28.9	21.9	29.9	26.3	29.6	27.3	26.2	30.0	27.9	28.9	23.6
SNS 콘텐츠	27.0	19.1	26.7	27.3	41.2	33.2	23.7	20.0	20.6	34.5	22.1	28.8	25.3	24.6	30.9	29.1	24.3	25.1
인플루언서(SNS/유튜브 등)	21.9	15.2	22.8	20.9	26.6	17.4	20.1	21.3	24.6	22.4	21.5	21.6	20.6	21.0	23.8	21.9	21.6	22.5
라디오 프로그램/뉴스	18.4	15.3	20.0	16.8	11.3	14.3	21.3	23.7	19.2	13.9	21.5	16.0	15.5	17.0	22.2	21.2	16.0	11.0
인쇄매체(신문, 잡지) 뉴스/콘텐츠	16.7	15.4	18.3	15.1	12.5	14.0	21.5	16.3	18.2	13.9	18.9	12.8	20.6	14.6	15.5	19.5	13.7	12.0
인터넷 동영상 광고	13.7	9.4	14.4	12.9	13.1	12.5	10.0	12.8	19.9	12.5	15.0	8.0	15.2	14.6	11.4	14.7	13.7	7.9
인터넷 배너/검색 광고	12.4	9.4	12.3	12.4	12.5	11.9	9.3	11.7	16.4	11.5	12.8	12.8	12.3	13.5	11.2	13.7	11.2	8.9
인쇄매체 광고(신문, 잡지)	9.8	6.6	10.2	9.3	8.1	9.1	9.8	9.6	11.9	8.4	10.9	7.2	12.3	9.4	8.0	11.6	8.2	4.7
옥외 광고(버스, 지하철, 건물 옥상 등)	8.0	5.8	8.4	7.5	9.9	10.6	5.7	6.3	8.0	9.1	7.4	6.4	10.9	6.9	6.5	8.8	7.1	6.3
라디오 광고	7.0	5.7	9.0	5.0	6.3	8.6	6.7	6.7	6.7	6.6	7.1	8.8	8.0	8.7	4.4	8.3	5.6	4.7

Q.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해 판단하고 귀하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78page

관심 분야

- 평소 관심 분야로 “금융/재테크”가 가장 많았으며, “정치 일반” > “사건/사고” > “날씨”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후/환경”은 여성, 5·60대, 환경 관심도가 높은 집단의 응답률이 높은 편임

관심 분야		Total	2024년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정치 성향			환경 관심도		
1순위	1+2+3+4+5순위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혼	기혼 유자녀	기혼 무자녀	보수	중도	진보	관심 많은 편	보통	관심 적은 편
(Base)		(2,000)	(2,000)	(999)	(1,001)	(335)	(385)	(418)	(460)	(402)	(728)	(1,147)	(125)	(586)	(711)	(703)	(1,092)	(717)	(191)
 금융/재테크	15.2	48.5	47.6	48.4	48.6	38.2	41.6	53.1	56.1	50.2	41.2	53.4	45.6	50.2	47.5	48.1	47.6	49.8	48.7
 정치 일반	11.2	41.9	33.8	46.8	37.0	30.4	31.4	43.5	50.9	49.5	32.7	48.0	40.0	38.7	30.4	56.2	42.9	41.7	36.6
 사건/사고	11.2	41.9	45.0	33.8	42.8	42.1	41.3	39.7	37.4	31.8	41.6	35.7	42.4	35.0	39.4	40.0	36.6	38.5	47.1
 날씨	7.4	38.3	38.1	30.3	45.4	37.9	35.6	35.2	41.7	38.3	36.1	38.4	42.4	33.3	43.3	36.1	38.4	38.9	30.9
 문화/예술	8.0	37.9	29.5	28.3	45.8	47.2	39.7	33.7	32.4	34.8	47.1	30.6	37.6	31.9	38.8	39.5	37.5	36.4	36.6
 기후/환경	10.0	37.1	35.7	30.2	39.4	25.4	26.5	36.1	40.9	42.3	28.0	39.4	32.0	27.8	37.1	38.3	45.0	24.4	15.7
 정책 이슈	6.6	32.7	30.0	32.8	32.5	31.3	35.3	28.7	34.6	33.1	30.6	32.9	42.4	32.6	28.0	37.4	33.5	31.9	30.4
 부동산	4.5	26.7	31.4	25.5	27.9	15.2	27.8	28.2	30.0	29.9	18.8	31.1	32.0	29.0	27.3	24.2	25.5	28.6	26.2
 스포츠	6.2	25.1	24.9	37.9	12.2	23.6	24.9	24.4	23.5	28.9	26.8	24.1	23.2	26.6	26.2	22.6	23.0	26.1	33.0
 연예	4.2	21.9	27.0	15.6	28.1	33.7	29.1	21.3	15.7	12.7	29.5	16.2	28.8	18.6	24.3	22.0	18.1	25.5	29.3

Q. 귀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는 분야/주제는 무엇인가요?

주) 1+2+3+4+5순위 기준 상위 10개 79page



THANK YOU

본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리서치 기획사업본부 사업1부]

이혜정 부서장	[hjlee@hrc.co.kr / 02-3014-0147]
장선영 수석(SPoC)	[syjang@hrc.co.kr / 02-3014-0095]
이길아 책임	[kalee@hrc.co.kr / 02-3014-0079]
조윤아 프로	[choya@hrc.co.kr / 02-3014-1035]

© 2025 Hankook Research –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constitutes the exclusive property of Hankook Research. Hankook Research retains all copyrights and other rights over, without limitation, Hankook Research's trademarks, technologies, methodologies, analyses and know how included or arising out of this document. The addressee of this document undertakes to maintain it confidential and not to disclose all or part of its content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Hankook Research.
The addressee undertakes to use this document solely for its own needs and the needs of its affiliated companies as the case may be, onl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document for services of Hankook Research. No other use is permitted.